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3월 27일 수요일(주간) 제 362 호



법석 조대 **화산 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내 말과 행동,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화두를 들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하철역 '자비의 말씀' 훼손 심각

지하철 포교단체인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이사 성관'가 21일 발표한 '자비의 말씀' 게시판 훼손 실태에 따르면, 2001년 1년 동안 파손된 게시판은 총 45개로 월평균 4건 수준이었으나 올 3월 들어서만 13개의 게시판이 훼손돼 3배 이상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껌을 붙이거나 아크릴을 흠집내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최근에는 게시판 아크릴과 포스터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사진은 서울 둔촌동역 게시판)이다. 더 심한 경우는 도구를 이용해 게시판을 파손,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다.

훼손 형태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의 월배역 등 일부 역에서는 파손으로 인한 교체 직후 재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1개 노선의 104개 게시판에 모 대중목욕탕의 불법 선전 스티커가 부착돼 게시판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스티커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는 다른 게시판에는 전혀 부착되지 않고 '자비의 말씀' 게시판에만 부착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훼손임을 짐작케 한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역 115개소에 460여개가 설치된 이래 450개소, 1600여개로 늘어났다. 1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950여만명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불교의 대외이미지 개선과 포교 효과를 얻고 있으며, 지하철 포교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게시판 훼손 사건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불자들이 '자비의 말씀' 게시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지하철 포교에 대한 무관심이 훼손 증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비의 말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포교용 게시판으로서 불자 모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박봉영(취재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출가

1. 불자님께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①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어서 ②산사에 살고 싶어서
③세상살이가 고달파서 ④실연등 마음의 고통 때문에 ⑤기타

설문 참여: 3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3호 9면에 실습니다.

성보박물관 '기준 미달' 많아

전문인력 30곳중 8곳, 7곳 항온 항습시설 없어

"관리체계 일원화 · 정부지원 절실"

◆사찰박물관 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

사찰명	항온 항습	전문인력
월정사	○	2명
수덕사	○	1명
해인사	○	없음
금산사	○	1명
동화사	×	없음
쌍계사	○	1명
백양사	×	없음
통도사	○	5명
직지사	○	2명
송광사	○	3명
대흥사	×	없음
법주사	×	없음
기림사	×	없음
옥천사	○	없음
표충사	×	없음
부석사	×	없음
도갑사	○	1명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지원으로 94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사찰 성보박물관 30곳의 상당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26일 조계종 주최로 열린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흥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은 "상당수 사찰박물관이 유물의 성격이나 수량, 해당 사찰의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 없이 지어지다 보니 당연히 갖춰야 할 전문인력과 항온 항습 시설, 충분한 전시공간과 수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사찰박물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17곳 가운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8곳, 16명에 불과해 안정적 유물 관리와 효율적 전시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유물 보존에 필수적인 항온 항습 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7곳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정부 예산으로 지어놓고 본다는 식으로 사찰측에서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지만, 개관한 뒤 드는 막대한 운영 예산을 사찰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항온 항습 시설의 경우 설치비도 고가지만 운영비가 만만찮아 설치 후에도 가동을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흥선 스님은 "박물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능동적으로 적용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관계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최성은(덕성여대) 교수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찰박물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보면 사찰박물관이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 교수는 "종단이 먼저 해야할 일을 선행해야 한다"며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찰이 일정한 후원금을 모금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도 "사찰박물관은 일반 사립박물관과는 구별돼야 하며 마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행자 236명 '깨달음의 길' 서원

"번뇌 끊고 부처님 지혜 이어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조계종 제22기 행자교육원이 20일 직지사에서 개원돼 4월1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182명 여행자 94명 등 모두 276명이 입교. 이 가운데 남행자 36명, 여행자 5명이 탈락, 236명이 최종 입방했다. 직지사= 고영배 기자

'한국불교문헌록' 발간

불교학 연구 기초자료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국내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이 결집된다.

동국대 두뇌한국(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은 19일 2006년까지 〈한국불교문헌목록(가칭)〉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헌목록 정리 작업은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불교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문헌목록〉은 역대 강백들의 현존 저술뿐 아니라 현대에 발간된 관련 논문과 단행본 등 최근 연구성과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단순히 목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한글 해제까지 단다.

조용길(동국대 도서관장) 단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학원 불교학과 지망자와 연구 논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매년 두 차례 국제 영문 불교학술지 발간,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수행환경 파괴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조계종, 정부에 촉구 결의문

조계종 중앙종회가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 · 23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20일 254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161억8천여만원) 세출(144억 1천여만원) 결산 승인, 종책질의, 종무보고, 동국학원 승려이사 정관대로 이행 촉구결의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 153회 임시중앙종회를 폐회했다.

종회는 또 원로회의, 사면복권,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종헌 종법 개정의 건을 다음 임시종회로 이월, 최우선하여 다루기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월 착공

18일 건축 허가,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4월경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다.

조계종은 18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전달받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외형을 유리구조로 처리하는 등 새롭게 설계(조감도 참조)된 불교역사기념관은 지하4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 1,375평, 건평 694평이다.

지하 1층에는 전시실이 들어서고, 지하 2층은 공연장, 지하 3층은 수장고,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층 불교문화정보센터, 지상 2층 대회의실, 지상 3층 멀티미디어라이브러리, 지상 4층 총무원장 집무실 및 회의실이 갖춰진다.

특히 별관건물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이 마련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 설

주5일근무제 포교대책 수립

7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는 한국사회에 '여가시간'이란 화두를 던지며 생활구조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불교계가 이런 변화에 주목, 이를 포교의 큰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반가움이 앞선다.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분과위가 '주5일 근무 패턴'에 대한 공동세미나와 함께 현장답사 및 조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종합 자료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이에 '보고 느끼고 즐기며 부처님 바로 알게'란 과제를 붙인 것 역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본지 붓다뉴스를 비롯한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여행과 체험'이라 했으며 불자들은 적극적인 신행생활을 다짐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불교에 대한 관심고조에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축은 불교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깊은 산속의 산사는 여행과 체험의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현대화에 발마추어 가고 있는 여러 도심 포교당에서는 공연장이며 전시실 등 일반의 관심에 부응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여기에 각종 지역축제와 주말농장 등을 연계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월과 6월에 있을 월드컵 대회 때의 템플 스테이도 좋은 경험으로 살려 이때 확보된 인프라를 계속 활용하는 일도 권할만하다.

포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충만한 에너지를 얻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잠재적 불자들까지도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불교에 다가 설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찰 자연환경 史記 되도록

숲은 나무들만의 집합이 아니라 만생명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숲은 영적(靈的)이며 생명적인 공간이다. 그러기에 불교는 애초부터 생명의 종교로 출발했다. 돌이켜보건대, 수행자의 삶은 당대의 정신적 지표였고, 사찰의 자연환경은 당대 자연환경의 지표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참으로 염려스럽다. 절집 스스로가 저지른 자해(自害)와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被害)로 인한 환경파괴 때문이다. 소위 '명찰'로 소문난 절일수록, '선지식'이 머무는 절집일수록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16일 발족한 사찰생태연구소는 반생명적인 사찰환경의 변화가 곧바로 수행환경임을 직시하고, 사찰 환경문제의 한 해법을 '자연생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두고 있다.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기는 일에 무관심해왔다. 〈삼국유사〉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에도 당시의 자연 상황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정보화시대인 지금도 사찰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소가 전국 108곳 사찰의 환경기록을 위해 10년 원력을 세웠다고 하니 그 볼사아말로 대(大)불사라 여겨진다. 이 불사는 1세기, 10세기…, 그보다 더 먼 미래에 21세기 한국 사찰의 자연환경 사기(史記)가 될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미래 세대들에게 오늘의 사찰환경을 전해주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파괴되었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혜안을 전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선학원 수계자 인정 난색

조계종, 단일계단 원칙·고시법 등에 위배돼

지난 6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선학원의 2000년도 자체 수계자 문제가 양측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학원은 2000년 자체적으로 1주일간의 행자교육을 통해 30여명의 행자에게 사미(니)계를 주고, 또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30여명의 사미(니)에게 구족계를 수여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계종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달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선학원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현재까지는 선학원의 자체 수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 이유로 조계종 관계자들은 우선 20년간 단일계단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이를 인정할 경우 교육법이나 고시법, 계단법 등 종헌종법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계종은 그 단적인 예로 98년 종단사태 때 통도사가 자체 수계를 했지만 결국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열린 제22기 행자교육원에서 작년 10월 이전 입산 행자로 제한돼 있는 입교자격요건을 선학원 행자에게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선학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다"며 "나머지 문제는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칙'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선학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학원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단일계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0년도 수계자들을 구제해주지 못할 경우 양측의 합의정신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내부 반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학원 차상엽 연구과장은 "조계종이 조만간 공식입장을 전달해 오면 이사회 등을 거쳐 선학원의 방침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이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도영스님 승가원 이사선임

경찰청 경승 취임법회



경찰청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사진)스님을 경찰청 경승으로 위촉, 21일 경찰청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도영스님은 19일 열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에서 전 포교원장 정련스님의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이사로 선임됐다. 김철우 기자



◇태고종은 25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 130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오른쪽)이 20일 25기 수계자에게 승려증을 주고 있다.

태고종 수계자 130명 승적

선암사 연수교육, '先교육 後득도' 강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8~20일 3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25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계자 130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지난 해 8월부터 3차에 걸친 예비교육과 합동교육에 참여한 수계자와 비대위 측에서 별도로 선암사에서 실시한 행자교육 참여 행자가 함께 동참해 화합종단의 의미를 깊게 했다. 지난해 태고종은 1년여를 끌던 내분으로 수계산림을 불가피하게 따로 진행했었다.

태고종은 종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先敎育) 후득도(後得度)제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매년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하는 행자들에 대한 승적 발급 기준을 강화시켜 오는 2004년까지 종립학교(동방불교대학·선암사승가대학)를 졸업하는 수계자에 한해서만 승적을 발급할 방침이다. 이경숙 기자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 불교대법회 개최

4월9일 국립극장서

2002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 성공을 기원하는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불교대법회가 열린다.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하는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불교대법회가 4월 9일 오후 2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조계종 스님 1,200명과 태고 천태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 400여명, 체육계, 월드컵 참가국 주한 외교사절 50여명 등 총 1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공사

5월29일 준공, 12월초 개원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20일 조계종 제15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일산 불교종합병원 현황보고를 통해, 5월 29일 준공한뒤 12월초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산 불교병원의 지역적 위치가 일산지역 80만을 포함하여 파주 김포등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100만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하지만은 않다"며 "병원건립에 들어가는 1500여억원의 자금문제도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 불자들과 동문들의 약정액이 545억원에 달하고 현금도 280여억원이 들어와 있다"며 "병원 건립에 후원해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은 대지 8885평에 건평 3,041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2층이며, 총 병상수는 양방 600, 한방 200, 증축 200 등 총 10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살리기운동 구체화

인드라망, 올사업 발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은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갖고 새해사업기조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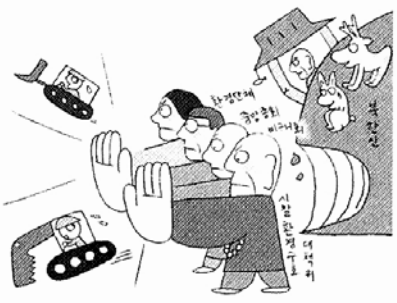
인드라망은 올해 사업기조를 도농공동체 운동에 대한 실천적·이론적 준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구체화 등에 두고 인드라망 생협 법인화, 불교귀농학교 총동문회 결성, 생태사찰 연구모임 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드라망은 일철, 혜자 스님과 김기병 전 포교단장 등을 새 공동대표에 위촉했다.

강유신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불자들 한마음으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즐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



귀의삼보하옵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는 그동안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후원으로 안으로는 종단개혁운동, 밖으로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본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서화 도예전'은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공간이 될 본회 회관건립 불사에 뜻을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원로 중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스님들과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 화 합장

■ 일 정
불기 2546(2002)년 3월 27일(수)
~ 4월 2일(화)

■ 장 소 : 인사동 덕원 갤러리 4층

■ 개막식 : 3월 27일 오후 2시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신문, 불교방송,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 문 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
☎ 725-4277

■ 주요 작가
서옹, 석주, 원담, 석정, 혜정, 원응, 보성, 중광 外
강암 송성용, 남농 허건, 월전 장우성,
남정 박노수, 옥산 김옥진, 아산 조방원 外



사찰마다 독특한 프로그램 선뵈

월드컵기간 중 고유의 민족문화가 깊게 스며있는 전통사찰을 외국인들에게 개방, 한국불교를 알리게 될 템플스테이(Temple Stay) 운영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준비에 사무국과 31개 사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12일 운영사찰 회의, 21일 참여종단 대표자 회의를 연이어 갖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1박2일 문화체험, 2박3일 수행체험 등 기본프로그램과 3박4일 사찰특성 프로그램을 개발, 각 사찰에 시달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사찰에서 1박을 하며 사찰음식을 접해보고 예불, 참선, 발우공양, 인경, 다도 체험 등을 가능토록 했다.

수행체험 프로그램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불교적 수행방법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범패시연, 녹차제작, 사경, 탑돌이, 선무도 등이 첨가됐다.

31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회당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번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사찰은 수원 용주사, 양산 통도사, 해남 미황사, 제주 광명사, 부산 삼광사, 서울 탑주심인당 등 6개 사찰이다. 80명 이상을 수용하는 사찰은 김천 직지사, 평창 월정사, 제주 약천사, 서울 봉은사 봉원사 등 5곳, 50명 수용사찰은 서울 조계사, 인천 전등사, 대구 동화사,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고창 선운사, 원주 구룡사, 속초 신흥사, 서울 관문사 등 9곳이다. 나머지 11개 사찰은 1회당 20~4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사찰의 경우는 대중방을 이용해야 하고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사찰은 2~4인용 방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찰들의 운영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월정사,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선운사, 금산사, 내소사 등 7개 사찰이 연등만들기, 암자 사찰 순례, 산행 등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해인사 인경체험, 통도사 불화그리기 체험, 조계사 불교아트벼룩시장 · 전통놀이마당, 봉은사 목탁실수 · 인경체험, 전등사 염전 · 자연사박물관 체험 등이 실시된다.

또 봉원사 영산재 시연, 동화사는 서각체험, 미황사 탁본체험, 직지사 태극권 · 탁본, 범어사 불무도 시연, 약천사 범종타종체험 · 문화산책, 신흥사 산사음악회, 묘각사 전통 혼례재현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4월경이면 템플스테이 준비가 7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게 업무의 가닥이 잡히고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각 사찰에서 실시예정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 통도사 불화그리기 체험

설법전과 산내 암자 취운암 보살선원에서 실시되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는 불교회화 전문 성보박물관을 둔 사찰답게 불화그리기 체험이 주력 프로그램이다. 불화그리기 체험은 거대한 괘불을 특수 디자인해, 개개인이 직접 괘불의 조각 조각을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한데 붙이면 하나의 거대한 괘불이 완성되게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봉원사 영산재 시연

서울 신촌 봉원사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간 매일 오전 11시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종합예술 영산재를 시연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범패(음악), 장엄(미술), 작법(무용)이 어우러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관람하고 불교음악의 진수를 느끼며,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한다.

⊙ 해인사 인경 체험

합천 해인사는 '대장경 경판 인경 체험'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모조 경판에 외국인들이 직접 먹물을 바르고 인경하여 대장경의 인쇄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쇄한 종이를 기념품으로 소장토록 하여 본국에 가서도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해인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대장경 전시 관람과 목재 채취에서부터 판각까지 경판 제작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여 팔만대장경에 스며있는 불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 동화사 서각 체험

대구 동화사는 잘 다듬어진 목판 위에 외국인들이 직접 칼과 끌을 이용하여 경전 말씀이나 선구(禪句)를 새기게 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특히 목판 위에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그 글자가 드러날 때마다 느껴지는 환희심은 외국인들의 가슴에 오래남는 체험이 될 것이다.

⊙ 미황사 탁본체험

해남 미황사는 부도 탁본체험을 한다.

부도 탁본은 부도 표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종이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다. 미황사는 넝쿨과 이끼에 의하여 뒤덮혀진 채 오랜 풍상(風霜)을 견디어온 부도의 탁본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역사성을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다.

⊙ 전등사 염전체험

전국에서 품질이 최고로 손꼽히며, 우리나라 몇 개 남지 않은 천일염전이 소재한 강화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등사가 염전체험을 실시한다. 외국인들에게 정제된 소금이 아닌 햇볕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체험을 통해 한국전통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한다.

⊙ 묘각사 전통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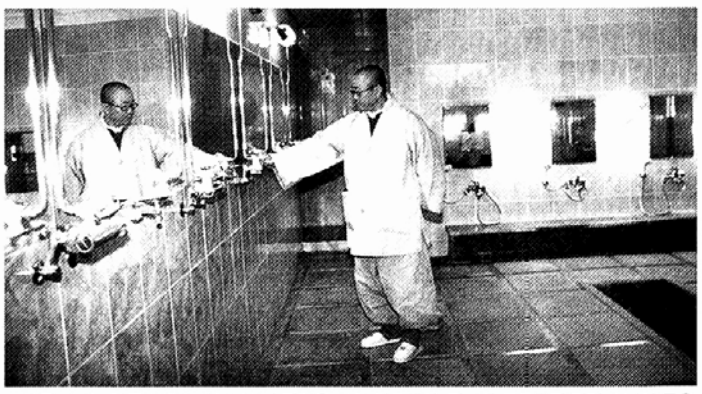
서울 묘각사는 전통혼례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계적으로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혼례식을 참관케 함으로써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인내하고 사랑하는 도리,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사회생활 영위, 일생 일대 경사로서 외국인들에게 축복의 의미를 함유한 한국전통혼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어떻게 되가나

1. 시행, 두 달 앞으로…
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직지사는 템플스테이 시설 개보수작업을 18일 완료했다. 직지사 포교국장 장명 스님이 목욕탕 시설을 점검하는 장면. 직지사= 고영배 기자

불화그리기 · 인경 · 탁본 등 다양
1회 2천명 수용… 최장 3박 4일

외국인 불교체험
여행프로그램 개발

한국전통문화포럼
여행사와 계약 착수

(주)한국전통문화포럼이 5월1일부터 외국인 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고, 개별여행사와 계약에 들어갔다.

(주)한국전통문화포럼(대표 방인철)은 이를 위해 순천 송광사, 서울 화계사, 파주 보광사, 고양 여래사, 보성 대원사, 순천 선암사,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등과 사찰숙박 또는 사찰순례, 다도체험실시에 합의했다.

전통문화포럼은 하루 1개 사찰에서 50~100명 정도 수용하여 다도 시연, 등만들기, 불교연극, 법패 관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자원봉사자, 차인들의 외국어통역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찰주변 여행지는 순천 낙안읍성, 보성차밭, 하회 민속마을, 선유도, 임진각, 도라산역을 연계시키는 독특한 여행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수준 높은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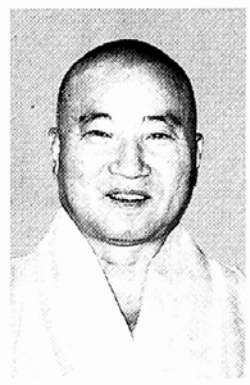
방인철 대표는 이번 여행프로그램이 "본사와 말사, 조계종과 여타 종단을 적절히 배합한 템플스테이 여행프로그램으로 각 여행사에 자신있게 추천한다"라며 "30일부터 1차로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禪 학문적체계 정립 과제"

한국선학회 2대 회장 법산 스님



한국선학회는 16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임기 2년의 2대 회장에 선출했다. 한국선학회는 선학(禪學)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선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3월 18일 동국대에서 학자, 스님 등 300여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법산 스님은 "선이란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로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현대 학문에 맞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고 강조했다.

◆선학회 2기 활동이 시작된 셈이다.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틀을 다지고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안에서부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학문적 체계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어야 대외적으로도 가지를 뻗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경제학이나 정신분석학, 예술 등 주변 학문과의 학제간 연구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과 예술' 등 선(禪)을 중심으로 한 테마 학술회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2년을 돌아본다면.

"2년만에 학회지가 3번이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한국선(禪)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선학 전공자뿐 아니라 과학이나 경제, 철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근본이 선종이고 선학을 표방한 유일한 학회가 선학회인 것을 감안하면 종단적 호응이 없었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변화가 있다는 말인지.

"선 수행자들, 선 계통 단체들과의 교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학, 즉 학문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으면 한다. 결국 목적은 수행이다."

◆1기와는 달리 운영위원에 동국대 선학과 강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학과가 있는 동국대에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선학과 출신 위주가 선 외적인 학문에 대한 배제는 결코 아니다. 선학과 주변 학문을 응용할 수 있고 서로 융화해야 불교학의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 또 그것이 불교학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의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선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선학이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경전이나 수행 방편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근본을 잊어버리기 쉽다. 선학이 선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선 수행을 안내하고 어떤 수행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또 현대에 맞는 방법인지 찾아가는 것이 선학이 할 일이다."

◆90년대 들어 불교학회 수가 엄청 늘었는데.

"불교학 관련 학회지만 20종이 넘는다. 월례 발표회를 갖는 학회 수도 늘고 있고, 그만큼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하지만 전공자들이 한정돼다 보니 발표 논문의 질적 하락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선과 예술' 테마 학술회의 계획
종단적 호응 없음 큰 아쉬움

2002 한 · 일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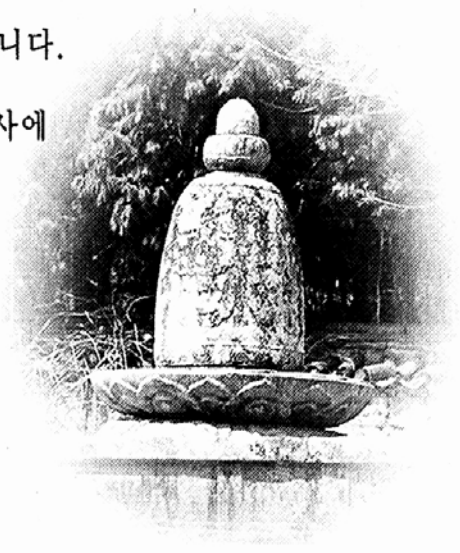
창건 이래 면면히 법등을 이어온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올해로 제 1357번째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중심지인 영남의 울산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2년 한 · 일월드컵과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행사에
범 불교인들이 동참하여 화합과 평화의 염원이 담긴
대회정신이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년 4월 17일 (수)
오전 9시 30분 보살계입제식
오전 11시 기원법회 봉행

❀ 장소 : 통도사금강계단 광장

❀ 법회내용
괘불이운 (9시)
영산작법 및 괘불현괘(9시30분)
기원대법회(11시)



제 15교구 영축총림 통도사
성공기원법회 추진위원장 주지 현 문 합장

월드컵을 맞이하여 통도사를 찾는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험행사

∴ 템플스테이(Temple Stay)

참선, 발우공양, 전통등 만들기
월드컵만다라 괘불그리기
전통인쇄문화체험 (능화판 및 대장경판 인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381-1442, FAX : 055-382-7196
http://www.tongdosa.or.kr / http://www.tongdosamuseum.or.kr

일주문



요사채 준공법회에 참석

녹원 직지사 회주는 24일 열린 선산 원각사 요사채 준공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인유이십란' 주제 설법

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는 30일 방송되는 부산불교방송 라디오법문에서 42장경 중 '인유이십난'을 주제로 법문한다.



경기북부 종무원장 취임

설운 경기도 양주 기원정사 주지는 31일 오전 11시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 취임법회를 갖는다.



'2002 대만포럼' 참석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2~24일 대만 밍천대학에서 열린 '2002 대만 포럼'에 참석했다.



창립 36돌 기념법회

황국근 대불청 부산지구회장은 30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창립 36주년 기념 박완일 법사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위덕대 겸임교수 임명

최순호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단 감독은 4일 경주 위덕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인 사

태고종 △교육부장= 월봉(경남종무원장) △포교부장= 원명(충북종무원 부원장) △연구부장= 재홍(관악산 성주암) △복지부장= 혜각(파주 약수암) △문화부장= 법인(연기 황룡사) △연수부장= 승조(순천 선암사) △홍보부장= 지상(부천 연홍사)

△종정사서실장= 법현(종단협 사무국장)

△총무원 종무위원= 보운(예산 향천사) 허(제주 흥룡사) 화경(화성 원광사) 혜성(前 강원종무원장) 법해(서울 원각사) 지상(전통가사연구원장) 도명(서울 백련사)

"수행공간 마련에 역점"

조계종 기초선원 4대 원장 지환 스님



기초선원 중심도량인 동화사 선원이 올해 봄철 교과안거에서 수용한 인원은 180여명. 그러나 한 달 간의 교과안거가 끝나면 이들은 다시 제방사찰로 뿔뿔이 흩어져 교육을 받게 된다. 교과안거 기간 외에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수행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선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교과안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를 확보하고, 학년별 수행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3년간 한곳에서 집중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선원운영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지환스님은 69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해인사 범어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을 거쳐 올해부터 동화사 선원에서 정진해오고 있다.

3년간 한곳서 정진할 수 있게

"수행하겠다는 사미 · 사미니들은 많은데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고, 그러다보니 질 높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14일 교과안거에 들어간 조계종 기초선원의 제4대 선원장을 맡은 지환스님(사진)은 무엇보다도 선원에 들어오는 사미 · 사미니들이 불편없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산사는 시대 환경 지표"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

"스님과 수행자들이 우리시대 정신 지표라면, 산중 사찰은 우리시대 환경 지표입니다. 전통사찰은 산중에 건물 몇 개가 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국의 문화 · 역사 · 자연환경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이처럼 귀중한 전통사찰을 역사적 자료로 남겨,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수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창립됐습니다."



향후 10년간 108곳 사찰 생태조사

16일 개원한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사진)은 사찰생태연구소 설립목적에 대해 불교환경운동 및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물 낭비, 과도한 세제사용을 통해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김 소장은 "환경문제 해결책은 설거지 물도 아끼는 발우공양 등 불교의 친환경적 삶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연구소를 개원한 목적도 여러 생태사상가들과 불교의 친환경적인 면을 역사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사찰생태연구소는 이달말부터 향후 10년 간 108곳 사찰의 생태환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대불사에 착수한다. "올해 지리산 화엄사, 남원 실상사 등 11곳 사찰 생태조사를 시작한다"면서 "환경파괴를 감시하기 위한 환경모니터를 모집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2)712-5813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범어사 본 · 말사 임원연수교육

범어사(주지 성오)는 16~17일 설법전과 휴휴정사에서 본 · 말사 임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상훈 스님을 비롯 1백여명이 동참했다. 홍선 스님은 이날 "지도자의 사고가 성숙되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본 말사 임원들이 연수후 기념촬영.



허길량 씨 '33관음속으로' 조각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허길량씨가 20~2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33관음속으로' 조각전을 가졌다. 허씨의 인간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반가상과 유희상 등 다양한 형태의 33 관세음보살 화신 성상이 선보였다.

사진은 20일 개막식 테이프커팅. 왼쪽에서 네번째가 인간문화재 단청장 만봉 스님, 그 오른쪽이 허길량 씨.

"전통문화 배우기 확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전통예술모범학교 선정 동국대 사대부중 주정식 교장



"전통문화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잘 계승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풍물패를 비롯해 사찰 유적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의 전통예술 모범학교로 선정한 동국대 사대부중 주정식 교장(사진)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배우기 운동을 학생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대 사대부중의 모범학교 선정은 문광부가 서울시내 초 중 고교 중 전통문화교육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실시한 학교를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대 사대부중은 97년부터 파라미타 풍물반 '한어울'을 창립해 그동안 각종 규모의 전국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학교 조회 등 학생들과 마주칠 기회만 생기면 학생들에게 우리의 얼과 전통은 항상 잊지말라고 당부한다는 주 교장은 "문광부가 준 지원금으로 우선 풍물반의 악기구입부터 시작해 전주 대사습놀이 등 큰 규모의 전통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설운도 씨와 함께 뜻깊은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촉돼 정말 감사합니다. 불자 가수로서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는 금강국수공장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주최 '남북한 결식아동 돕기 통일음악회'에서 홍보대사에 위촉된 가수 정수라 씨(사진)는 "법타 스님 등 불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북한돕기에 노력하시는데 십시일반 돕고 싶다"며 수락 이유를 밝혔다.

"금강국수공장 널리 알릴터"

평불협 홍보대사 정수라 씨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무학여고 근처 안정사를 다녔는데 절에서 예불을 올리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토로한 정수라 씨는 진각종 산하 진선여고 진학 후에도 꾸준히 신행생활을 했다. 그 인연으로 정씨는 12일 진각복지재단 인간 4사운동 선포식에서도 가수 편승엽 씨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금강국수공장 홍보 스케줄이 정해지는 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약속한 정 씨는 "기회가 닿는대로 불교를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불협은 17일 통일음악회 행사를 통해 2억5천여만원 물품과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이중 일부를 19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

강유신 기자



생명나눔회 정태훈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20일 서울 사무실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정태훈(16)군의 어머니 김명숙 씨에게 치료비 3백18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김씨는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사랑으로 골수이식수술도 원만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손양호 이사(오른쪽)가 김 씨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



영남불교대 주말농장단 개장

대구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는 17일 경북 청도 팔조령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말농장단 개장법회를 갖고 농장장에 김동만씨를 선출했다. 이날 우학 스님은 "이 주말농장은 흙의 고마움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신비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한 불자들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혜자 지홍 도영 성광 계성 스님, 윤종렬, 상운 스님, 이종인 정선진 심학섭 법사.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 12명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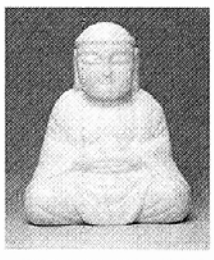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은 22일 12명의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상임위원들은 매월 1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군포교 사업 전반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상임위원 임명으로 군법당 등록을 통한 군간부 신도증 발급사업과 1법당 1사찰 지원사업, 군법당행정 통일안 및 기준 마련사업 등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성광(군불교위원장) 계성(군불교위 부위원장) 장곡(갑사 주지) 상운(포교부장) 지홍(조계사 주지) 원혜(봉은사 주지) 혜자(도선사 주지) 지홍(낙산사 주지) 스님, 정선진 (국방부 군종실 선임법사) 이종인(육군 군종감실 법사) 심학섭(해군 군종감실 법사) 윤종렬(공군 군종감실 법사)

용운사 백옥 천불지장보살 권선문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나날이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납이 기도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장경≫ <건문이익품>에 보면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혹은 젖먹을 때 혹은 10세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형제, 자매를 여의고서 이 사람이 장년이 된 뒤에 부모나 여러 권속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어느 취(趣)에 떨어져 있거나 천상에 있더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러 보고 절하기를 7일에 이르도록 하면 만날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장보살님은 사바세계 남염부제 중생들에게 현세의 고난을 다음 세상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 · 제도하시는 보살이시며, 모든 중생에게 행복과 평화 · 부귀와 안온 · 수명과 총명 등의 온갖 소원을 현세 중생에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조성중인 백옥 천불지장보살

따라서 지장보살님을 모시면 비록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좋은 곳으로 나게 되며 인생의 고달픔을 이겨내어 자성의 광명으로 빛나는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디 본 불사에 동참하시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을 입으시기 바라며 세세생생 이어질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지 풍원 합장

정기법회
· 매월 (음)초하루 11시(오류동 용운사 법회) · 매월 (음) 18일 11시 : 지장법회 (합강리용운사법회)

국민은행 283-21-0428-808 농 협 141-12-213067
우 체 국 311203-31-000076 조흥은행 514-06-487159
예금주 : 김장연

※ 1佛 동참금 : 30만원

복지법인 회향원 법인 설립 안내

용운사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분들과 노후를 부처님 도량에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실 양로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노인분들을 모시는 양로원 건립은 보다 이 사회를 따뜻하고 자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불심 깊으신 선남자 선여인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동참인원 : 이사 - 3名, 감사 - 2名

용 운 사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 8-1
전 화 : 041)864-6940 휴대폰 : 011)381-1102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친다는 靈驗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金剛 염주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남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必勝염주는 몸에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福을 부르는 염주중에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전설로는 염주를보면 삼배하면서 꼭 2가지 소망만 마음속에 생각해야하고 염주를 받은 후 3일전에 어느 누구도 염주를 넘으면 靈驗이 없어진다고 전래되는 염주입니다.

신청문의 전화 :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농협 1127-02-175765

국내 독점보급
KB 金剛닥터 KOREA
서울 ·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B/D 406호

부산 맑고향기롭게 자선바자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18~2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아시안게임 성공개최와 범시민 나무심기 사업기금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미경 콜렉션 주관으로 열린 자선바자회 수익금은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나무 묘목 구입에 사용되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박영근 범어사신도회 부회장(왼쪽 끝), 이미경 사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개막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금강메아리 월출산상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6~17일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월출산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에 동참한 20여 회원들은 천황봉 정상에서 산상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천황사와 도갑사를 참배했다. 한편 금강메아리는 4월 7일 서울 용마산과 아차산에서 정기 산상법회를 봉행한다. 20여명의 동참자들이 산상법회를 마치고 천황봉 이정표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성북승무사무소 자경문 강독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회장 박우락)는 19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법회를 열고 초발심자경문을 강독했다. 기원사 주지 상현스님이 강의를 맡았다. 불교법우회는 올해 연말까지 초발심자경문 강독을 상현스님의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참자들이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듣고 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신행활동 숨은 공로자 직장포교사들

직장 불자회를 창립을 주도하는 등 직장 내에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법회 준비와 집전, 사찰 섭외, 신행 길잡이 서적 발간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불자들을 위해 뛰고 있는 이들은 각 종단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가법사들.


◇하명찬 포교사 ◇정찬연 포교사 ◇최비석 포교사 ◇황소성 포교사 ◇김명락 포교사

법회준비·섭외·서적 발간

한빛은행 불자회장 8년째 이끌어
근무지 옮길때마다 신도회 창립 주도
퇴직후에도 사찰학생·청년회 지도

8년째 한빛은행 부산불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명찬(44) 씨는 한빛은행으로 통합되기 이전 상업은행 불자회 창립을 주도했던 불자다. 당시 창립 준비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던 7명의 동료들의 깊은 신심에 감명을 받고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입학, 불심을 키웠다. 하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단순한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는 불자회로 키워왔다. 일률적인 법회를 탈피해 장애인 봉사활동, 취미별 소모임 활성화 등 프로그램 다양화가 큰 원동력이 됐다.

"드러내고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거의 없어 회원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불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직장내 불교회 활동에서 가장 장애라는 것이 하회장의 설명이다. 하회장은 모든 직원들이 검색하고 있는 사내게시판에 불교회 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 정찬연(42) 사무국장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포교역군. 90년 구로전동차사무소 근무시절 불교법우회를 창립한 데 이어 성북승무사무소로 전근한 95년에도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를 창립했다.

대학불교연합회 활동과 군종병으로 근무한 바 있는 정국장은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며 직장내 포교활동에 힘을 얻었다. 2000년에는 철불협 창립을 주도해 철도청 내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철불협 전법팀 포교위원인 정 씨는 법회 준비와 집전, 법사 초빙 등 동료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을 돕고 있어 귀감 사례로 꼽힌다.

철불협 창립 이후 여세를 몰아 지난해 10월 창립한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교회의 경우 최비석(51) 포교사의 적극적인 포교가 큰 역할을 했다. 기계시설과에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회원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며 내실있는 불교회로 키워가고 있다. 부산정비창 불교회 창립 당시 70여명이었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해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 씨 등 부산정비창 내 포교사들이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섭외해 얻은 성과다.

부산경남 조계종 포교사단 직장 1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황소성(60) 포교사는 한일그룹 한일법우회 창립을 주도하고 퇴직 후에도 법우회 활동을 지원해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육주사 학생회와 김해 연화사 청년회를 지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 직장 직능포교 모범사례로 꼽힌다.

일붕선교종 포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김명락 포교부장은 기초교리 습의와 자료집 발간 등을 주도,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 있다. 특히 96년 불심회 창립부터 줄곧 포교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고 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회내 불심 하나로 모을터"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 김종환 회장



"정각선원은 국회 직원불자들의 불심을 상징하는 법당입니다.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불교신도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신도회는 올해 국회 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직원불자들의 신심 고양과 불자회 모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내 정각선원 개원 7주년을 앞두고 국회 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 김종환(55 ·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사진) 회장은 힘찬 포부를 밝혔다.

김종환 회장은 불교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 기본소양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160여명의 회원들을 직접 면담, 활동 계획을 밝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1월부터 원각경 강의를 전격적으로 실시, 회원들의 불심 고양에 나섰다.

또 회비 납부 형태를 자동이체 형태로 전환해 재정구조 개선하고, 회원들에게 불교신도회 활동을 알리는 회보와 이메일을 전

"5월 창립 20돌 활성화 계기로"

송,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김종환 회장의 모임 활성화 노력은 회원들의 철야정진과 새벽예불 동참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회 동참회원들의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 회장은 "5월이면 불교신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데, 현재의 분위기를 이어 침체를 털고 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82년 불교신도회 창립과 함께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취침 전과 기상 후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김 회장은 5년전부터 다니고 있는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일요가족법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신행활동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김 회장 가족은 금강선원에서 유명한 불자집안. '세웅'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김 회장 본인은 물론 부인 이정련 여사와 장남 주형, 차남 주후 씨도 법명을 갖고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공불聯 연합 수련회

4월13일 해인사서, 장경각 경판 인경도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식)는 4월 13~14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수련회를 겸한 연합법회를 열고 경남지역 공무원불자회간 교류 활성화와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경남불교협의회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13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시 · 군불자회별 음악회 및 지연스님(밀양 선우사) 초청공연, 찬불가 배우기, 철야 용맹정진 등 사찰체험을 비롯한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4일에는 새벽예불과 본행사인 법회, 장경각 참배, 가야산 등반 등이 준비된다. 특히 장경각을 참배할 때에는 회원들이 경판을 인경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는 경남도청불자회를 비롯해 경남지역 시 · 군 불자회 회원 등 65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우리 모임에선

경기도청불자회 봉녕사서 임시총회

경기도청 공무원불자회는 28일 수원 봉녕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근홍 전임 회장의 전근으로 공석중인 회장을 선출하며, 2002년 사업계획 및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KBS불교연 원택스님 초청 법회

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30일 정오 1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원택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원택스님으로부터 '성철스님 시봉이야기'를 주제로 법문을 들을 예정.

고양시청 연등회 선운사등 성지순례

고양시청 연등회(회장 이정섭)는 31일 고창 선운사와 내소사, 개암사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에는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이 법사로 참석하며, 회원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연등회는 이번 순례를 회원간 친목도모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석불선양회 미륵불입상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4월 7일 이천 어석리 미륵불입상을 찾아 석불친견법회를 봉행한다. 또 영원사 참배와 석조약사여래좌상을 친견, 예불을 봉행하며, 영원사 계곡 산수유마을에서 열리는 산수유 축제도 관람한다.

금주의 법회

■ 27일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 정기법회=오후 5시20분 금강원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오후 6시30분 춘천 대원사

■ 28일
△전남지방경찰청 · 전남도청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광주 원각사 △국립의료원 불자회=오후 5시 병원법당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법당 △국가정보원 세기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30분 서울 구룡사

■ 29일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대전불교언론인회 정기법회=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 4월1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삼량진양수 보림회 정기법회=자광사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20분 대구 최정사

■ 2일
△국립재활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병원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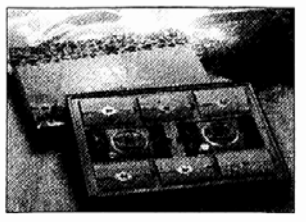
한국조동종총본산 창종설명간담회 안내
조계종과 조동종은 선종양대산맥입니다.

1. 이제는 만납시다. 조동선풍(曹洞禪風)을 함께 이르키고 종통(宗統)을 바로 세웁시다.
2. 정법안장(正法眼藏), 불조원류(佛祖源流)의 조동종(曹洞宗) 적통 대본산이자 구산선문(九山禪門)중 수미산(須彌山)을 개산한 고려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가 참학한 조정(祖庭:친정)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雲居山眞如寺) 조동종 제 49대 해음등료(海音瞪了)선사로부터 법통을 사법(嗣法)한 한국조동종총본산(제50대 금선학봉)이 일천여년간 단절되었던 조동선맥을 복원창종하고자합니다.
3. 설명간담회는 조동선학학술발표회에 앞서 조동종원류결(曹洞宗源流訣), 법통차서보(족보), 조동선(묵조선), 종헌(宗憲)과 종지종풍(宗旨宗風), 소의경전(所依經典), 간담회 순입니다.
4. 창종에 동참할 의향(意向)이 있거나 조동선원 개원에 뜻이 있는분의 참가를 바랍니다. 조동선은 일본조동종과 교류합니다. 조동선 지도법사 일본 정기연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창종설명간담회 장소 :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후문 57번종점, 삼각산 원효사
2002년 3월 29일(금)정오 전화로 사전 참가 연락주시요.

韓國曹洞宗總本山
140-1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전화 02)704-8065(대표), 713-0475 FAX 02)704-8064
홈페이지 www.jodong.org.kr
창종위원회 사무처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제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몽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아이들은 매일 법당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부처님과 약속한다.

16명 아이들의 보금자리 보광정사

스님아빠의 자식사랑

강석, 최지연, 김종범, 안덕현, 김경호, 서영준, 최병준, 김기훈, 윤현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제 각각의 성을 가진 이 아이를 16명은 스님을 아빠로, 또 엄마보살, 할머니 보살을 의지하며 부산의 보광정사에 모여 살고 있는 가족이다.

보광정사의 주지인 지홍스님이 처음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은 17년전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으누이를 맡으면서부터. 이후 13~14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다 갔고 이후 소문을 듣고 하나들 모여든 아이들이 16명으로 늘어나 대가족이 되어 버렸다.

미인가 … 보조금 없어

지홍스님은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보니 스님아빠가 되었다"며 웃었지만 속이 편치만은 않다. 부모가 없는 고아보다는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의면한 경우가 더 많은 까닭이다.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무책임한 어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깊어진다는 의미이니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암담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곳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어서 정부보조금은 일체 없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생활비 일체는 보광정사 신도회가 관리하는 사찰재정으로 충당된다. 또한 스님이 매일 5~6시간씩의 개인택시 영업을 해 벌어들인 수익금도 고스란히 쏟아붓는다.

지홍 스님은 8년 전부터 개인택시를 해왔다.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 하고 있는 택시 운전은 도심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스님만의 포교 방편이자 아이들 생활비를 버는 수단이기도 하다.

내색하진 않지만 스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쌀과 부식의 일부는 신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신도들로부터 받는 매달 운영비와 택시로 번 돈으로는 16명 아이들 먹는 것조차 빠듯하다. 스님은 "궁한 것을 알아야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엄하게 기른다는 것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감추려들지만 마음은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부처님 진리이므로 언젠가는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 덕분에 장래 희망이 '스님'인 아이들이 많아 스님은 자식을 제자로 맞을 날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로 생활비

스님은 "잘 먹이고 입히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성원해 주는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방법:계좌101-021307-04-017(중소기업은행) 예금주 보광정사 051)524-8932

글 · 사진= 부산/천미희 기자

신행 캘린더

3월 30일 (토)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우리 아이 학교생활은 잘 하는지….' 이런 염려를 한 번쯤 해본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옥수복지관의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초등학교 1~2학년생 강좌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3~4학년생 강좌 오후 2시, 5~6학년생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서울 옥수동 본원. 참가비는 8만원이다.(02)2282-1100

3월 31일 (일)

■연화복지학원 '위빠사나 선 명상교육'= 미얀마 선원 주지인 산디마 스님에게서 남방불교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볼 기회. 또한 농아불자들을 위한 수화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오전 11시 서울 광림사 내 연화복지학원.(02)2202-5831

4월 1일 (월)

■원심회 '점자 · 수화교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 원심회는 장애인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고통을 함께 해보는 점자 · 수화교실을 마련했다.

매주 월 · 목 오후 7시 조계사 불교대학. 3개월 과정의 본 강좌 참가비는 초급 4만원, 중급 5만원.(02)720-4528

■공창사회종합복지관 '아동정보화 교실'= Window Me 사용법, 기초 인터넷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공창복지관이 마련한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됐다.

화~목 오후 1시 복지관 정보센터, 참가비는 무료.(051)363-2063

4월 2일 (화)

■은평노인복지관 '늘 푸른 교실'= 노인들을 재교육시켜, 평생 쌓은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자는 취지의 '늘 푸른 교실'. 노년학, 교육지도방법론, 인간관계론 등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지난 1월 '늘푸른 교실' 현장 실습 모습.

개강일은 이날 오후 2시. 수업은 월 · 목 10시 30분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강의료는 무료.(02)385-1351

■국청회 '선사상' 강좌= 보조사상연구소 실장인 인경스님을 통해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3개월 과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대승선의 이해'. 월회비 1만원을 내면 국청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02)730-1249

■자비행회 '육락 스님 초청법회'= 자비행회는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흥사단 빌딩에서 영주 대연사 주지 육락 스님을 초청,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참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02)591-3545

4월 4일 (목)

■신양인 아카데미 '동서종교 수행법' 강좌= 동국대 윤영해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수행법 강좌.

4일은 '불교의 염불과 독경, 11일에는 ' 좌선과 참선 '이란 주제의 강좌가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참가비는 강좌당 8천원.(02)776-4121

■터사랑 '성지순례'=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물 380호 쌍계사 부도, 보물 500호 쌍계사 대웅전,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평사리….

이번 여행의 출발은 저녁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5만5천원.(02)725-1284

수행 · 포교 실천하는 참불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안양 망해암 봉사회 강해정 회장



◇강해정 회장(맨 오른쪽)이 망해암 설법전에서 주지 법두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봉사회 회원들과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항암치료 고통속 염불 참선 계속
"도반과 실천하는 봉사회 만들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생 제도, 즉 포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 실천하는 불자가 참 불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관악산 끝자락 안양 망해암에서 16일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해정(67) 보살을 만났다. 참선법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중 일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찰 이곳저곳을 안내하면서 강 보살은 수행과 포교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부지런히 설명했다.

제 1대 봉사회 회장을 맡아 2년 등안 활동했던 강 보살은 봉사회 제 4대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됐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도 강 회장은 도반(강 보살은 회원들을 도반이라고 표현했다)들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

강 보살은 1대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3개 지역장 중 하나인 안양 등안구 지역장을 맡기도 했다.

"회장을 하다가 곧바로 회장 아래 지역장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선법회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가 제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아만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장 소임을 더 열심히 수행하기로 했지요."

강 보살은 이 일을 계기로 한시도 화두를 놓지 않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더욱 용맹정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99년 10월, 강 보살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찾아간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누워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과 미륵부처님을 염송하고, 앉아있는 등안에는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 쓰러진 것도 수십 번. 신앙심으로 육체적 고통에 맞서 싸운 강 보살의 노력은 6개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없이 큰 환희심을 느끼며 '수행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게 됐다.

"망해암은 시민선방을 열어 불자들을 맞고 있지만, 산중사찰이다 보니 불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도들이 지역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사찰에 올라와 내 집처럼 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의적인 발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지요."

망해암 신도들은 사찰 중창 불사는 물론 공양을 짓고 법당을 청소하는 일까지 당번제를 활용하고 있다. 안양 동안구과 만안구, 경기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서 10일동안 사중 업무를 돕는 제도가 체계화돼 있다.

강 보살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망해암에 들러 사중 일을 돕는다. 30년째 사중 일을 내일처럼 솔선하며, 도반들을 격려한다.

"봉사회는 정기적으로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강조하면서 실천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이지요. 봉사활동은 수행의 연속이자 수행을 사회에 회향하는 실천이며 포교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들아보고 서원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는 거지요."

추천의 말

법두 스님 망해암 주지



망해암에는 요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사격을 갖추기 위한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봉사회'로 불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준 불자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봉사회는 참선법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임이지요. 망해암의 명물을 꼽으라면 단연 봉사회가 될 것입니다.

강해정 보살은 제1대 봉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제4대 회장에 뽑혔습니다. 신도들로부터 받는 신망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이겨내고 다시 수행과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강해정 회장이야말로 여러 불자들에게 진정한 사표가 될 것입니다.

14일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해정 보살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 병행하는 봉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참선법회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평소 지니던 화두도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다. 강 보살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는 봉사회로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 박봉영 기자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작년에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2002년도는 아래와 같이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 장 소 :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4-3733

"근기·취향 맞게 참선·염불 수행"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염불선

1. 관정스님의 정토선
2.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결사
3. 청화스님에게 듣는 염불선

'무아 무소유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청화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스님은 불자들에게 어느 한 수행법을 강조하지 말고 각기 근기와 취향에 맞게 참선, 염불, 묵조선, 주력 등으로 정진할 것을 가르친다. 특히 스님은 화두참구 우위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정의(知情意)를 조화시킨 수행법으로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행법이 우리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염불법이라 설하시는 스님은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이 화두선과 다름없음을 강조한다.

20일 도봉산 광륜사(주지 대천) 선원에서 스님을 만나 염불선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한국 불교에서는 화두선 지상주의라, 염불을 폄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는 염불을 강조하는데서 더 나아가, 염불과 참선이 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무자(無字)나 이뭣고, 또는 관치생모(板齒生毛)나 모든 화두가 다 일체 유루적(有漏的)인 상대 유위법을 떠나서 오직 불심(佛心)만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안이나 염불이나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묵조(默照)도 청정미묘하고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을 관조하니까 같은 것이고, 또는 공안도 제일의제(第一義諦)인 한 물건 자리를 참구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고, 염불도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스러운 극락이 십만억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방편이 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만법이 본래 부처일 때는 바로 선(禪)인 것입니다. 염불은 부처님 당시부터서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이라고 경전에 다 나와 있고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또,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불은 따지고 보면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부처가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선(禪)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고려 없이 염불은 하근기(下根機) 중생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공안선, 묵조선, 염불선 이런 수행법에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화두, 묵조, 염불선도 근기나 성향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우리 불성은 원래 원만무결한 것이지만 중생은 숙업(宿業) 따라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서나 의지로 참구하는 쪽보다 화두를 의단(疑團)으로 참구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고, 확신을 위주하고 의단을 싫어하는 사람은 화두없이 묵조(默照)하는 것도 좋겠지요. 어느 쪽으로 가나 다 성불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겠지요. 자기 근기에 맞으면 더 빠르고 쉬울 것입니다."

◆염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염불이라고 하면 부처의 이름,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이 있고 또는 부처의 상호 곧 32상(三十二相) 80종호(八十種好)를 갖춘 원만덕상을 관찰하는 관상염불(觀像念佛)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관상염불(觀想念佛)이 있습니다. 음은 똑같습니다만 앞의 것은 상(像)을 관찰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공덕(慈悲功德)이라든가 훤히 빛나는 지혜광명(智慧光明) 등 부처님의 공덕을 상상하는 염불입니다. 그 다음은 실상염불(實相念佛)입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가유(假有)나 허무에 집착하는 무(無)를 다 떠나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진여불성(眞如佛性)자리 이른바 법신(法身)자리를 생각하는 염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여불성자리를 생각하는 실상염불이 참다운 본질적인 염불입니다. 이른바 법의 실상, 내 인간 생명의 실상, 우주 생명의 실상,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법신(法身)은 있지도 않고 또는 공(空)하지도 않은 중도실상의 생명의 광명을 관조하는 염불이 곧 실상염불입니다."

◆스님이나 재가 불자들 가운데 '어떤 부처님을 염해야 좋을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다 한꺼번에 염해야 할 것인가' 하고 마음에 갈등을 갖습니다.

"부처라는 평등일미(平等一味) 자리에는 높고 낮은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명호(名號)나 다 좋지요. 그러나 본사 아미타불이라, 모두를 포괄적으로 법보화(法報化) 삼신(三身)을 말할 때는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불할 때는 아미타불을 많이 하는 셈입니다만 어떤 명호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공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불선과 화두선이 둘이 아니기에, 염불삼매와 화두삼매의 경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염불삼매는 어떠한 경계입니까.

"염불삼매에는 인(因) 과(果)의 두 경계가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관상(觀像)염불을 하거나 또는 일심으로 법신의 실상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을 하거나 혹은 일심으로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행법을 인행(因行)의 염불삼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명(佛名)을 외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법신자리를 믿어야 참다운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닦아갈 때 염불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견성하기 전에, 인행의 염불삼매가 성숙되면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혹은 시방불(十方佛)이 현전(現前)하며 혹은 법신의 실상 이른바 진여불성에 계합되는데 이것을 과성(果成)의 염불삼매라 합니다."

◆스님께서는 삼매 체험을 강조하시면서, 선정의 힘으로 나타난 신통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근본 정통선을 익혀야만 참다운 선정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도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정통선으로 해서 사선정(四禪定) 사공정(四空定) 멸진정(滅盡定)까지 못나간다면 우리 자성이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자성 가운데는 삼명육통(三明六通)등 무량 공덕이 갖춰져 있는데, 삼매로써 습기를 녹여야 무량공덕이 나옵니다. 불교가 다시 옛날 도인들처럼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 불을 내어 자기 몸을 태우는 정도의 도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대 물질사회에 젖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제도하기도 쉽습니다."

◆일부 스님들중 계율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계율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까.

"계행이 있어야 깊은 삼매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애행(無碍行)'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걸림없네 하면서 짓는 파계는 무애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애행은 법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행을 지키고도 걸림이 없는것, 그것이 무애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가자를 위한 수행 지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속에서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 염불입니다. 명호부사의라! 그 이름 자체에 부사의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음성 모든 형체 하나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우주 생명자체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화스님은

50여년간 선원·토굴서 묵언·일종식·장좌불와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출가 이후 은사 금타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50여년간 제방의 선원과 토굴에서 묵언과 일종식 및 장좌불와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서야 토굴생활을 접은 스님은 1985~95년 곡성 태안사에 머물며 당시 폐찰이 되어가던 태안사를 중창했으며, 95~99년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에 머물며 현지인들과 교포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특히 95년 1월 동안거 중에 7일간 대중을 위한 '순선안심탁마법회(純禪安心啄磨法會)'를 열어, 참다운 선수행의 도리를 설하기도 했다.

스님은 7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의 법문 요청을 마다않고 수시로 법을 설한다.

방법 "옳다" "그르다" 부질없는 일
실상염불 참답고 가장 본질적인 것
마음의 업장 녹이면 모두 견성가능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바라밀의 완성

3월-바라밀의 달
- 발보리심
- 발보리심의 단계
- 창조적 자기변화
- 바라밀의 완성

자기완성·利他추구가 목적
"장기기증후 내몸 귀함 알아"

발보리심 후에는 마땅히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보살의 실천행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육바라밀의 실천행을 통해 수행할 것을 가르친다. 자신보다는 이웃과 중생을 위하는 것, 즉 육바라밀은 자기완성과 동시에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조한순 보살(50)은 5년 전 발보리심을 한 뒤 지금까지 육바라밀을 실천해 오고 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그동안 불교를 머리로만 알려고 한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보리심을 내게 됐다.



◇생명나눔실천회에서 홍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는 조한순 보살(사진 맨 오른쪽).

그 뒤 조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전화기나 부엌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육바라밀'을 써서 붙여 놓고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에서다. 장기기증과 함께 말기 암 환자에게 편지를 쓰고 말벗이 돼주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유는 없지만 파주양로원에 후원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매주 일요일에는 파주 보광사에서 참선과 기도를 한다. 조 보살은 기도할 때 늘 참회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모질게 대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참회하고 또 참회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기도한다. 5계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매일 저녁 하루를 점검하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

조 보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보시와 보시바라밀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보시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보시바라밀다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주었다는 마음도 없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바라밀행은 수행의 방편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보살이 되기 위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보살이 되면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바라밀의 실천은 방편이 아닌 목적, 즉 삶의 수단이 아닌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

한명우 기자

파동(소리) 성명학 수강생 모집

모집 부분

1. 기존 역학인 으로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
2. 평소에 역학에 관심을 갖고 현재 공부하는 분.
3. 스님, 무속인, 한의사 등등 기초 음양 오행을 아는 분.

(상기인은 주 2회 한달이면 완성합니다.)

4. 기초가 전혀 없는 초보자는 2-3개월이면 완성.

※ **개강일 : 2002년 4월 2일**

소리 성명학의 장점

1. 한문을 전혀 몰라도 된다.
2. 한글 이름만으로 성격, 직업,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당년운,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질병, 재산관계, 궁합, 동업운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3. 전 세계인의 어느 이름이라도 해석 할 수 있다.
4. 소리 성명학을 배우면 어느 장소에서든 그 사람 이름만 듣고도 운세를 통변 할 수 있다.

참고 = 이우람 선생이 창시한 소리 성명학은 20만명을 연구 대상으로 확인 실험한 결과 그 적중률이 90%를 넘는 놀라운 성명학임을 입증 하여 특허 까지 받아 놓은 학문이며 한양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도 정창근 명리학 교수가 소리 성명학을 강의하고 있다.

문 의 ■ 전화번호 02)3453-0001 · 3453-0106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영동전화국 맞은편 건물 307호
■ 상호 : 해수 명리연구원(원장 직강)
■ 한양 대학교 : 02)2292-3588 (정창근 교수 직강) 02)2290-0089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氣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氣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봉 축

23차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교류활동을 펼쳐온지 어언 23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23차 대회는 「東西文明의 가교가되는 佛敎의 理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가 참여하여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행사 세부일정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환영만찬	2002년 5월 22일 18:00~~21:00	日本 甲附 下部 溫泉 호텔
본 대 회	2002년 5월 23일 10:00~11:45 13:30~16:30	法要式(久遠寺) 세미나 및 불교문화 공연(久遠寺)
성지순례	2002년 5월24일-26일 08:00~18:00	久遠寺 및 東京, 요코하마 인근 사찰

동참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5월10일까지)
불기 2546년 3월 일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서정대 이사장 이홍파 사무총장 전남정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3층
02)725-3677, 720-1708 Fax 02)720-1709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㉑

우주론

만유 연기법칙따라 계속 순환

올바른 우주 알게 될 때, 신의 뜻을 알게 되는 날 심오한 佛法 활짝 필 것

우주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고 던지는 질문이다. 우주에서 우(宇)는 사방상하(四方上下)로 공간을 뜻하고, 주(宙)는 왕고래금(往古來今)으로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우주는 자연계에서 물질과 이것이 차지하는 4차원적 시공간 전체를 뜻한다. 우주는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우주(全宇宙)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우주로 물리법칙이나 관측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관념적 우주이다. 흔히 신화적 우주관이나 종교적 우주관이 이에 속한다. 이런 우주는 주관적 우주로서 어떠한 규칙성이나 법칙성이 들어있지 않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고대 중국에는 태(太)려는 원초적 혼돈상태에서 밝고 맑은 기는 하늘을, 탁하고 무거운 기는 땅을 이루었으며, 또 천지에 음양이 나누어지고 만물이 생성했다는 우주생성에 관한 우주관이 있다.

둘째는 물리학과 수학에 의해 기술되는 물리적 우주이다. 여기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엄격히 만족되고 또 수학적 언어로 그 내용이 정확히 기술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4차원적 또는 다차원적 세계를 뜻한다.

셋째는 관측 가능한 우주이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시공간의 우주를 뜻한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관측기술이 발전될수록 더 확장되어 더 먼 과거의 우주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더욱 멀리 확장하여 더 먼 과거의 우주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 천체물리학자는 이런 관측 사실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우주를 찾아낸다. 물리적 우주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우주론에서는 다음의 가정을 쓴다. 첫째, 우주 내 물질은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균일성. 둘째, 어느 방향에서 보든 우주는 같다는 등방성. 셋째, 다른 지역 사이에 물리적 간섭이 없다는 비간섭성. 넷째, 물리적 성질은 시공간적으로 균질하다는 균질성.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편성이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여 정적 구면우주를 제안했다. 즉 물질이 존재하면 그 주위에 공간이 형성되는데 유한한 우주 물질은 유한한 크기의 구면 공간을 형성하며, 물질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과 같은 크기의 밀어내는 척력이 균형을 이루므로 우주는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1920년대 허블의 관측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 간다는 우주 팽창의 발견으로 정적 구면우주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됐다.

1923년경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여 진화론적 우주모형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1948년 가모프는 우주 대폭발설을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초에 우주 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한 점(특이점)에 모여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키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것이 퍼져나가며 요동치면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전자라는 물질을 형성해, 여기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또 원자들이 결합하여 원시 은하물질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별과 행성이 생기고 생명체가 탄생됐다는 것이다. 대폭발 우주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고 또 팽창으로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며 늙어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2500여년 전 노자의 도덕경 중 '도화(道化)' 편에서 대폭발설의 내용이 언급됐다. 즉 '절대적인 도(道)에서 기(氣)가 나오고, 그 하나인 기가 다시 둘로 나눠져 음과 양이 생기고, 그 둘인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됨으로써 세 번째인 화합체가 생기며, 이 화합체에서 만물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도는 우주의 특이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성, 소멸의 섭리를 뜻하며, 기는 에너지이고, 양과 음은 양성자와 전자를, 화합체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만물은 원시 은하물질과 여기서 탄생된 모든 물질을 뜻한다.

'우주는 언제 어디서 보든 동일하다'는 완전 우주론적 원리를 가정하는 정상 우주론이 있다. 여기서는 무에서 유의 물질 창생을 가정함으로 연속 물질창생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생성이나 진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에서 만유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우주관은 대폭발 우주관보다는 정상우주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떠한 우주모형이 가장 올바른지를 모른다. 아마 올바른 우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주 신의 뜻을 아는 날로써 심오한 불법이 활짝 피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그림 · 문병성

이렇게 들었다

덜 버리는 것이 최선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환경부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고, 소각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0%대로 늘린다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8일 확정,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0년 41%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 2011년 53% 등 10년 안에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까지 1조1천억을 들여 전국에 중·대형 소각장 90여 곳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량도 2005년 6%, 2008년 9%, 2011년 12%로 꾸준히 늘어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00년 0.98kg에서 2011년 0.91kg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확실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역시 이 경우에도 중요한 건 '일상'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 필요 이상의 것은 탐하지 않는 무욕의 삶이다.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얻듯이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법구경 화향품>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뼈·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유마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지금 여기서 진행중

道는 움직임 통해 드러나는 것

임제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붉은 고깃덩이 위에 하나의 자리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면문(面門)으로부터 출입하니,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 스님이 선상(禪牀)을 내려와 그를 움켜잡고 말하였다.

"말해라, 말해!"

그 스님이 머뭇거리고 있자 임제 스님이 그를 탁 놓아버리고 말했다.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니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리고 곧 방장(方丈)으로 돌아갔다.

도(道)는 말이 아니지만,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나 도를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말을 하면 도는 바로 왜곡되어 버린다. 도는 본래 왜곡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지만, 사람이 스스로 말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를 놓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말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도가 말이나 생각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렇게 생각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도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말과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긴 오해와 착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말과 생각을 만들거나 말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도는 움직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보고 듣는 감각적 움직임, 생각하고 인식하는 의식적 움직임, 잡고 걷고 흔들고 하는 육체적 움직임 등을 통하여 도는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진행중인 움직임이므로 생각이나 말로써 고정될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떻게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생각한다거나 행동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살아 있는 움직임 그대로가 아니다. 오히려 움직임은 한 마디 한 마디 말하고 있는 지금의 말 소리에서 살아 있다. 그러므로 온갖 말들이 차별되고 다를지라도 움직임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마찬 가지로 움직임은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있는 여기에서 살아 있다. 그러므로 씌여진 글자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도이다. 드러날 때에는 움직임으로 달라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본래 달라짐이 있을 수가 없다. 움직임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말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한 마디 말일 뿐이고, 아무리 많이 행동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동일 뿐이며, 아무리 많이 글을 쓰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한 획을 긋는 것일 뿐이다. 움직임은 어떻게도 규정되거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규정하는 이 순간이 움직임이요, 머무는 이 순간이 움직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리 없는 참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머뭄 없는 움직임일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거나 말하려 하면 벌써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머뭄 없는 움직임이라는 말도 이미 어긋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움직임과 하나 되고 도와 하나 될 것인가? 만약 도를 찾고 움직임과 하나 되려는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래 움직임에서도 도에서도 어긋난 적이 없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관세음보살 Bodhisattva of compassion 원통전 hall of the Avalokitesvara

The Hall of the Avalokitesvara assumes the Avalokitesvara, the compassion Bodhisattva. Born from a ray of light emanating from Amitabha's right eye, Avalokitesvara is thus closely related to Amitabha. And so assists those who request access to the Pure Land. The name means 'Hearer of Cries'.

She is frequently pictured with a vase and willow spray. Avalokitesvara often assumes a Water-moon Avalokitesvara or thousand-eyed and thousand-armed form. Each hand bears an eye so that the Bodhisattva can see how to help those in distress.

원통전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오른쪽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서 태어나 아미타불과 깊은 관계가 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협시해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중생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관세음보살은 때때로 꽃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든 모습을 표현되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수월관음이나 천수천안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천수천안관음은 각 손마다 눈을 있어 고통 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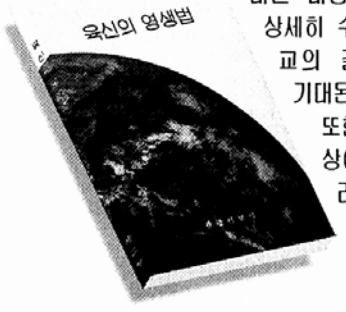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지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활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분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안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비법전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함께 건강해지는 특별한 수련!

1. 단전호흡 : 性命雙修
혜명경, 대성첩경의 저자 유화양 선사를 깨달음에 이르게한 도가의 수행비전 『영보필법』특별수련 (소주천, 대주천····)
2. 금선기공 : 外氣放射
整體法, 穴道術 (외기방사)등을 익혀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으로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움.
3. 기공치료특강 : 道家養生氣功
도가비전의 기공치료법 공개
4. 무당삼봉태극권 : 內丹修煉
도인체조,근골강화,기혈유통으로 건강은 물론 내단을 이루어 감.
5. 수련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02. 4. 1 ~ 4. 30 (1개월간) 19:30~
● 장소 : 세계금선학회(사당역11번출구150m)
● 문의 : 02)512-7057,7233(팩스겸용)

※ 특별수련기간중 건강해진 스스로의 모습에 한번 놀라고 비전의 진법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세 계 금 선 학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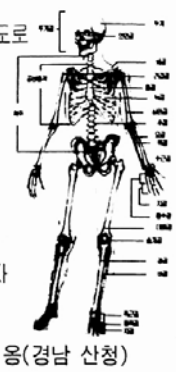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6층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목어 나는 어떤 불자인가



어느 절에서 법회를 볼 때의 이야기다.

모인 대중은 대부분이 노보살님들이었다. 거사님이 두 분, 청소년은 한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절에 30년 이상 다닌 분들은 손을 한 번 들어보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신도들이 손을 들었다.

10년이상 신행한 분들을 물어보니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다.

이어서 삼보가 무엇인지 아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한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비단 이 절만의 실정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이런 절이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국내 사찰 가운데 절반은 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반드시 불교적 상식이 있어야만 불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교는 맹목적 신앙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합리적 이해와 그에 따르는 실천을 겸들여야만 불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는 종교인 것이다.

불자는 모름지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목에 염주를 두르고 불자의 티를 확연하게 드러낸다고 해도 올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불자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불자란 이름을 걸고 부처님의 뜻을 거슬리기까지 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도 탐욕과 교만, 맹목적 신앙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는 명색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불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불자일까.

필자는 여기서 자기자신을 어떤 불자인가 돌아볼 잣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는 진실로 신심이 돈독한가?

나는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얼마나 닦고 있는가?

나는 보살 정신을 이웃에게 펴고 있는가?

나는 전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불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불교의 내일은 밝아질 것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법당 난입

지난 10일 발전 노조원들의 결거를 위해 경찰병력이 조계사 법당에 투입된 사건이 벌어졌다. 73명이 참여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조계종단이



해당 경찰등 문책해야 75%

너무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한데 사건의 원인이 있다고 답한 불자는 27명(36%)이었다. 종교의 신성성을 경시하는 공권력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20명(27%),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이 저하된 점을 탓한 불자도 23명(31%)이나 됐다.

또 응답자의 75%에 해당하는 55명이 경찰과 종단에서 문책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연태기자

"'물쓰듯' 옛말…한방울도 아껴야"

불자 세상보기



김재성
대한매일 논설위원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인류는 진작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도록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 지 모른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삼라만상이 내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펼쳐놓은 것이 우주이며 두두물물이 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난생(卵生)이든 습생(濕生)이든 모든 생명의 바탕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흙과 물과 공기는 생명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이렇듯 무궁무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오묘함이다. 따라서 흔하디 흔한 흙과 물과 공기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중생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소중한 것은 천하게 여기고, 필요없는 것을 오히려 애지중지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공기가 없으면 3분 살기도 힘들고 물 없으면 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물과 공기는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니 어리석다고 안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사람이 육식을 포함해서 영양 섭취를 위한 식량생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1년에 약 1천 700톤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사용가능량이 1천톤 이하면 물기근 국가로, 1천700톤 이하면 물부족국가로 분류하는 데 우리나라는 벨기에 캐나 모로코 폴란드 르완다 소말리아 남아공과 함께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연간으로 따지면 세계 평균 1.3배(1,274㎜)인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물의 이용관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강우량이 6~8월 3개월에 집중돼 있고 경사가 심해 빠른 속도로 3면의 바다로 유입돼 버리는 지형적 특성, 그리고 하천과 댐의 이용관리의 허점도 있

22일 '세계 물의 날'
한국 물부족 국가로 분류
빗물관리 체계화·절수 절실

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물 귀한 줄 모르는 낭비 습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395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281) 덴마크(246)등 OECD 선진국보다 많고 독일(132)의 세 배나 된다. 수세식 화장실과 집안의 샤워 시설을 부러워하면 시절에는 물 사용량이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시민의식이 뒤떨어진다는 말이다. 인구 60억 돌파 후 물부족은 식량, 에너지와 함께 지구촌의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해 우리나라도 20년 후면 물기근 국가가 된다. 아울러 각국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 물기근이 올 것에 대비 공급 대책을 세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래서 지각있는 사람은 물을 물 쓰듯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샤워할 때 물을 잠그고 비누칠을 하면 30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그 깟 돈 30원 아끼자고 사워 꼭지 잠궜다 켰다 하기가 귀찮게 생각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각 가정이 수도요금 몇백원 아니 몇천원 더 내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그 물을 공급하느라 들어가는 비용과 소비된 생활하수 처리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인 것이다.

가정에서 습관을 바꿈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물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해 보자. 세면을 받아서 하면 10원, 기름기 묻은 그릇 화장지로 먼저 닦으면 40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100만 가구가 이것을 실천해 가구당 연간 만원을 절약한다고 치자. 그 1만원은 별 것 아니지만 절약되는 물의 양은 1천 800만톤으로 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정수장 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이 1천200여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주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은 또 달라진다.

황금을 우습게 알면 복을 받지만 물을 우습게 알면 재앙이 온다. 반대로 황금을 좋아하면 재앙이 오고 물 한방울 귀한 줄 아는 삶에는 복이 깃든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운동…성찰과 전망

최근 불교시민운동이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불교NGO 단체들간 연대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불련, 불교환경교육원 등 10개 단체들은 22~23일 서울 관문사에서 '다양성의 시대, 불교운동의 성찰과 전망' 주제 불교사회단체 워크숍을 갖고, 연대 가능성과 그 전망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서동석, 윤형근, 조연현 씨의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의 불교NGO 활동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연대방향을 알아본다.

시민운동으로 정착 안돼

서동석(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80년대 이후 불교시민운동의 출발은 광주민주호운동과 10 · 27 법난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80년대 불교시민운동의 목표는 사회 민주화와 종교적 자유 회복에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여래사운동', '통불협' 활동 등 민중불교운동을 전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90년 불교인권위 출범, 91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92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등을 통해 불교계는 94 · 98년을 겪으면서 종단 자정 등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인력 양성 · 이념 확립을

90년 중반 이후의 불교시민운동은 나름의 전문성을 지닌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 및 조선족 동포 후원, 후진국 기아 구호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소비자운동, 환경보호 운동 등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1세기 불교시민운동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법률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이념확립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불교시민사회 운동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더없이 높일 수 있다.

연기적 사고 생명운동 근거

윤형근(한살림 교육담당)



최근 들어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대두함에 따라 사회운동은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은 생명운동으로 변화했다.

불교적인 삶과 가르침은 생명운동의 이론적, 사상적 배경이 된다. 세계를 생명의 그물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 · 우주의 관계를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동양적 가치관의 생태적 사유는 생명운동의 중요한 근거이다.

연기적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전면적 변화나 각성, 깨달음 등과 우주적 삶 · 생태적 삶 · 사회적 삶이 통일이 최근 대두한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이 추구하는 바다. 또한 생명운동은 나눔과 협동, 공유 등을 통해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생명력의 회복은 생명운동의 지향일 것이다.

또한 생명운동은 환경 · 생태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회복,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 회복을 이뤄야 할 것이다.

나눔 통해 공동체적 삶 구현

깨달음 운동으로 승화돼야

조연현(한겨레신문 기자)



사회운동은 활을 떠난 화살과 같이 관성에 의해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매순간 살피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 혼동될 만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평화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 폭력적일 수 있고, 환경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는 반생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운동 역시 힘으로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에 올 고통과 갈등마저도 뿌리뽑기 위한 깨달음의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만이 아니라 운동 과정의 전체가 여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불교 종파적 이기심 극복을

불교운동의 동력은 대중적인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운동의 에너지는 수행을 통해 나오는 자비의 에너지여야 할 것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교의 종파적 이기심을 내세워서는 모든 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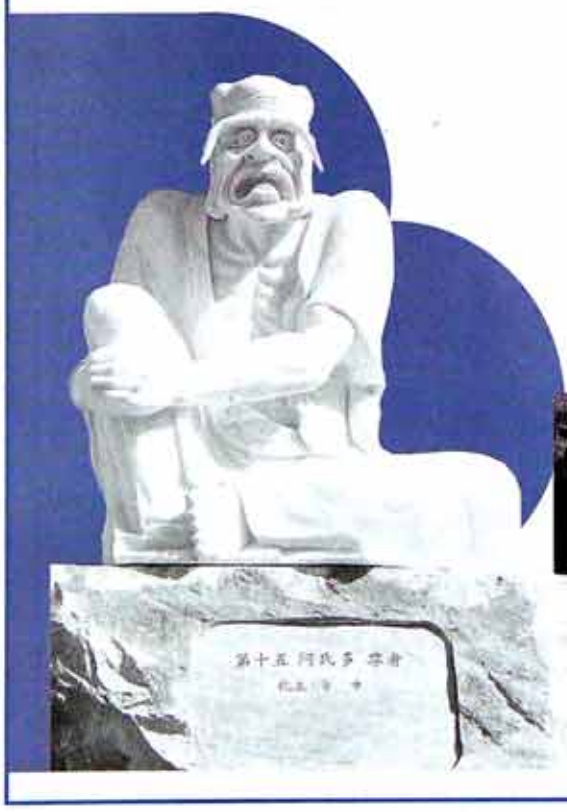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적 이기심이 우선 극복돼야 한다. 불교 깨달음의 궁극인 '평등지'는 불교적 이기심을 극복할 단초를 준다. '나', '내 지역', '내 편', '내 종교'의 아집을 벗어나 일체에 대해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대승 보살은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일치됨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다.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인도 불교계 '위빠사나' 논쟁

찬 부처님시대부터 수행법 … 일부서 폄하

반 채식·비폭력 강조… '불교의 힌두化' 우려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인도 불교계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위빠사나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달리뜨 보이스(Dalit Voice)'라는 잡지가 지난해 '불교에 관한 논쟁'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많은 불교계 인사들과 독자들을 논쟁에 참여시키면서부터였다. 지면을 통해 논의된 많은 논점들 중 유독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문제가 특히 첨예한 찬반 양론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부처님 시대부터 불교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온 위빠사나가 이제 와서 새삼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핏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인도 불교의 특수한 상황아래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법도 하다. 현재의 인도 불교는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에 의한 '불가촉천민' 들의 집단 개종에 의해 재기했으며, 불교도의 절대 다수는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하층민들이다. 때문에 힌두교도가 장악하고 있는 기존 사회체제에 반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힌두교가 인도의 종교전통을 내세워 불교세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위빠사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엔까(S. N. Goenka)의 '힌두화된 위빠사나 수행'을 지적한다. 고엔까는 브라만들의 전통인 채식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비폭력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도 불교의 사회개혁적 성향을 흐리고 있으며 나아가 '불교의 힌두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위빠사나 수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인도의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위빠사나 수행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키기에는 때가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이들은 위빠사나가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온 불교인의 바른 수행인 것이 명백한 마당에 일부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위빠사나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엔까가 위빠사나를 힌두교 전통에 뿌리를 둔 수행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찍이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을 전수하여 인도에 재도입하고 전파한 고엔까의 공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위빠사나를 직접 체험한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위빠사나 수행을 불교 수행법으로 전파하자는 입장이다.

위빠사나 논쟁은 많은 관심을 모으며 현재까지도 '달리뜨 보이스'에서 진행중이며,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보이스 오브 붓다(Voice of Buddha)', '쁘라붓다 자가뜨(Prabuddha Jagat)' 등 불교지들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달리뜨 보이스'는 불교 전문지는 아니지만, 발행인 겸 편집인이 잘 알려진 불자이고, 평소에도 소수 종교에 대한 기사를 자주 다루어서 많은 불자들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인도 마하슈트라주 뿌네시에 소재한 TBMSG(삼계의 불자들을 돕는 모임) 법당에서 불자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가짜승려' 골머리

올들어 16명 구속, 액막이 齋·占등 사기

싱가포르 경찰 당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가짜 승려의 증가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영문판 '선데이 타임즈'가 17일자로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두달 반동안 16명의 남녀 가짜 승려들이 당국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는 지난 한해동안 같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와 같다고 한다.

또한 이 신문은 구속된 이들 대부분이 싱가포르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불교 연합' 대변인은 "이들 가짜 승려들은 자신들이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왔다고 말하며, 액을 막는 재(齋)를 올리거나 점을 쳐주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 라마 '첫 손'

2위 교황, 3위 만델라

獨잡지, 현인 설문조사



독일인들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사진)가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독일 잡지 '게오 비센' 최신호는 현존 인물중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고르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33%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14%가 교황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와 교황에 이어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12%의 지지를 얻어 현자 순위 3위에 올랐으며, 4위는 11%의 지지를 얻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는 30%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마하트마 간디(25%), 테레사 수녀(18%), 알버트 슈바이처(11%)등이 선정했다.



해외불서

•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라= 행복에 관한 저자 타로 골드(Taro Gold)의 생각들을 석가, 공자, 노자 등의 말을 곳곳에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 저자는 마음이 실재를 창조하고 행복이 상상력을 형성하며, 무아(無我, Openness)가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이미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미국 Andrews & McMeel 출판사 펴냄.



• 티베트 밀교의 성취비법= 티베트불교 닝마파의 경전인 〈반야심경〉〈보현행원찬〉 등을 티베트어 원문과 발음을 표기, 일본어와 병행해 해설하고 있다. 원문은 닝마파의 총본산인 민도르링의 활불(活佛)인 고쿠티엔 림포체가 몸소 편집했다. 번역은 해설 이외에도 한역과 티베트어를 대비해 실제 법당에서의 작법(作法) 등을 삽입, 학문적이면서도 알기 쉽다. 다나까 코우메이(田中公明) 번역, 일본 대법륜각 발행.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의 한글학교 중급반 담임 박혜자(오른쪽)선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국사랑·불교 함께 배워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 한글학교운영 … 모국어교육 2세 포교

한마음선원 캐나다 토론토지원(지원장 청각스님)이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캐나다 이민 2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는 모국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불교도 공부하게 해 정체성을 가진 불자 교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만4세 이하의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10명이하의 유아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이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과 학생법회 1시간, 외국인이 도와주는 숙제시간 1시간 30분, 문화시간 30분이 포함돼 불교공부도 하고 오락도 배우며, 숙제도 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글학교 지도법사인 청동 스님은 "약 3년전부터 한글학교를 열어 오던중 지난해 여름부터 본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정식 한글학교로 재편성이 되었다"며, "자라나는 2세들을 교육시켜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참된 불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6. 마트리체타 존자와 가패

불교사에서 가패(歌唄)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 찬탄하는 의례는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가패란 원래 범어 파타(pāṭha)의 역어로서 찬송, 찬탄을 의미하며 여러 대승경전에 그 종교적, 예술적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법화경〉의 "가패로서 부처님의 덕을 찬송하여 작은 음성으로서도 모두 불도를 이루게 되며"라는 구절은 범패라는 불교예술의 원형적 지평을 확인해준다.

한국불교에서 가패는 즉 범패이다. 현재 불교교단에서 행해진 가패의례의 오랜 기원은 문헌상으로 서기 2세기의 인도 나란다사원대학까지 올라간다.

저명한 역경삼장(譯經三藏), 의정(635~713)은 671년부터 695년에 이르는 25년 동안 인도와 수마트라 등지에서 구법활동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환한다. 의정은 율장의 역출에 노력하여 중국불교사에 가장 많은 율장을 번역한 삼장이었으며, 당시 인도불교학의 중심지였던 나란다사원대학에서 10년간 수학한 학승답게 대승불교에 정통한 인물이다.

150 찬불송 지은 불교시인

부처님 지혜·공덕 기려

의정 삼장은 711년, 무착, 세친과 같은 대논사들 조차도 존경해마지 않았던 불교시인 마트리체타(摩呾里制吒)가 쓴 〈일백오십찬불송〉을 한역하고 있다. 본서는 의정 삼장이 684년 나란다사원대학에서 이미 번역하였다가 711년 다시 중철(重綴)하여 펴낸 것이라고 전하며, 이 책에서는 의정 자신이 당시 유학한 나란다사원대학에서 행해지던 가패 의례를 잘 전해주고 있으며 2세기경 활동했던 저명한 불교시인 마트리체타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 한역은 물론 범본과 티베트역이 현존하는 〈일백오십찬불송〉의 저자로서 마트리체타의 명성은 의정 삼장이 나란다사원대학에 유학중일 때까지도 드높아서 의정은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나의 번역으로 읽는다. "예불할 때에는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되 음성을 합하여 길게 찬탄한다. 혹 10송, 20송이 있는데 이것이 그 법이다. 또한 여래 등의 패(唄)는 원래 찬불(讚佛)이다. 음운(音韻)을 길게 뽑아 찬탄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비록 알기 어렵지만 혹 고요한 밤에 들으면 대중들이 처연(悽然)히 여긴다. 찬송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백오십찬(一百五十讚)〉이나 〈사백찬(四百讚)〉 혹은 다른 찬송을 외우게 하는데 이는 진실로 아름답다. 그러므로 서국(西國)의 예경(禮敬)에는 찬탄이 성대히 전해진다. 단지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세존께 예경하는 찬탄을 칭설(稱說)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존자(尊者) 마트리체타는 서방의 굉재(宏才), 석덕(碩德)으로 으뜸가는 분이어서 무리 중에 빼어난 분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옛날 부처님께서 재세하실 때, 부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인세에 유행(遊行)하셨다. 그 때 앵무새가 부처님의 상호가 장엄하여 황금빛 산과 같은 것을 보고 숲속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으로 찬영(讚詠)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새는 나를 보고 환희하여 자신도 모르게 슬피우는구나. 이 복을 말미암아 내가 열반한 뒤에 인신(人身)을 얻어서 이름을 마트리체타라고 하며 널리 나의 실덕(實德)을 찬탄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처음 외도에 출가하여 대자재천을 섬기며 이미 존경하는 바를 찬영하다 후에 기명(記名)되어 있는 바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을 받들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였다. 널리 찬탄을 일으켜서 전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수승한 가르침을 따르되 스스로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뵙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다만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상(遺像)을 받들어 예불하여 우러러 찬불공덕의 수기(授記)를 받았다. 처음에는 〈사백찬〉을 쓰고 이어서 〈일백오십찬〉을 지었으니 모두 6바라밀을 설하여 볼세존께서 지니신 수승한 공덕을 밝히는 글이었다. 이 글에 담긴 생각은 가히 완려(婉麗)하여 하늘의 신들도 함께 부를 정도였다.(중략)"

이처럼 의정은 자신이 수학하던 나란다사원대학의 찬불송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으며 본 〈일백오십찬불송〉을 지은 마트리체타의 저명함을 보고하고 있다. 〈일백오십찬불송〉을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기리며 한 줄 한 줄 소리 내어 읽는다면 마트리체타 존자의 순수하고 열성적인 신심에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학회 회주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신간!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족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칠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우리들은 불교문화 포교사예요" 긍지 대단



◇김연숙 봉사자(불교회화실 담당 · 사진 왼쪽 빨간 옷 입은 사람)가 관람객들에게 통도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탱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영축산 능선을 따라 핀 진달래가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를 찾은 이들을 반기던 15일, 환한 봄햇살속에 우뚝 선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관람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연건평 1천2백여 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불교회화실, 통도사 역사실,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실 등의 전시실을 갖춘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매일 관람객을 맞기 위해서는 40명을 웃도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박물관 직원 19명 외에 최소 20~25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시설관리실과 학예연구원 등 정규 직원들만으론 대규모 박물관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보충된다.



◇지난 2000년 4월 11일, 김용사 괘불을 통도사성보박물관까지 옮기는 괘불이운 전통의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50여 기의 번(幡)을 들고 이운행렬에 동참한 모습.

26조 6개분과로 나눠 안내·유물 보호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에는 문화자원봉사회(회장 박해종)가 발족되어 각종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1999년 3월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탄생된 문화자원봉사회 회원수는 현재 890명. 이들 중 600여 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6개조 6개 분과로 나뉘어, 박물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일일 일조씩 입구 및 전시실 안내, 유물 보호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동절기엔 오후 5시, 하절기엔 오후 6시까지가 활동시간이다. 부산, 울산, 양산 심지어 대구에서 새벽부터 박물관으로 달려오는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8시 50분, 예불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시실마다 2~3명씩 배치된 봉사자들은 환한 웃음과 친절로 관람객들을 안내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주된 활동은 유물 설명 및 전시실 안내. 하루 평균 1백명부터 많게는 하루 수천명을 안내하기도 한다.

15일, 7조의 불교회화실 담당 김연숙 보살은 신바람이 났다. 평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전시실을 휘익 둘러보고 나가버리는 관람객 때문에 속이 상했던 김보살이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을 만났기 때문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을 만나면 절로 신이 난다"는 김보살은 탱화에 쓰이는 안료부터 조명, 실내온도, 습도 등과 탱화 보존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끝낼 줄 모른다. 이것 저것 질문을 해가며 전시실을 둘러 본 이석현(포스코 에너지지부 근무)씨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안내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 갈 수 있어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15일, 박물관대학 제2기 연구반에 입학한 불자들이 이재종(고려대 강사)씨의 '불교조각' 강의를 듣고 있다.



◇2000년 3월에 있은 제2기 문화자원봉사자 발대식 모습.

사찰 각종행사에도 앞장 직업·연령 계층 다양

문화자원봉사회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어, 일어 회화 가능자 50여명이 전담하는 통역과 외국인 안내 같은 전문분야 봉사부터 각종 행사시 허드렛일까지 봉사 영역은 무한하다. 괘불이운 의식 재현, 부도헌다제, 각종 전시 행사 준비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 열성을 보이는 이들이기에 통도사나 박물관에 행사가 열리면 멍달아 바빠진다. 요즈음은 오는 4월 17일 보살계 수계산림과 함께 열리게 되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법회를 앞두고 행사준비로 통도사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봉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자원봉사회는 교사, 교수,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인적 자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봉사회로 꼽힌다. 포교사 자격을 갖춘 이가 250명이나 될 정도로 문화포교사로서의 자긍심도 대단한 이들은 수적인 규모뿐 아니라 역량과 자질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99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873개 문화기관 중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문화자원봉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봉사회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기 회원 모집 당시,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하나라도 더 배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게 수강생들의 설명이다.

15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는 2기 연구반의 개강식이 있었다. 이날 봉사를 맡은 7조의 이복동(부산 · 52) 보살은 연구반을 3년 개근으로 졸업한 1기생이다. 입구에서 신발 정리를 하던 이보살은 "배워가면서 봉사하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늘어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 참 즐겁다"며 배움이 곧바로 질높은 봉사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7조 조장 정무희(울산 · 55) 보살 또한 "박물관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수지침, 불화그리기, 꽃꽂이, 다도 등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삶에 멋이 생겼다"고 자랑한다. "문화강좌에서 배운 다도로 부도헌다제때 차



통도사 문화자원봉사회
박해종 회장

"불교문화는 민족문화의 근간이며 민족의 얼과 지혜를 담고 있지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화포교사라는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해종(56 · 삼강종합건설 대표)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회장은 박물관 자원봉사가 곧 문화포교 라고 역설한다. 890명이라는 대규모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회장이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봉사자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이란다.

"전통문화의 우수성 후손에 전하기 최선"

박회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친절하라'는 것. 가장 일선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봉사자들의 태도가 박물관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정성을 다하자'는 것.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심어주어 문화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해종 회장은 "앞으로 불교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깨달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작은 정성을 보태나가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물관개관과 함께 발족…회원 890명



◇ 지난 연말 열린 제1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희기애애한 시간을 갖고 있다.



◇안남수(오른쪽) 정무희(가운데) 보살이 박물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아 신발주머니를 건네고 있다.

3개월동안 박물관과 문화전반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456명에게 자원봉사자격을 준 것을 시작으로 신규 회원 가입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이 된 후에도 각 분과별 연수답사, 전체 임원진의 정기연수교육, 상하반기 정기교육 등 수시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계속된다. 특히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대학은 문화자원봉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비법이 숨어 있는 곳이다. 불교학, 불교미술, 문화재 전반 및 해외문화, 유적답사 등을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1년과정의 박물관대학을 수료하면 3년과정의 연구반에서 한국의 불상, 한국의 불화, 한국의 불교공예, 한국의 불교건축 등 보

정기연수 등 수시교육 역량·자질·열정 뛰어나

공양을 올렸다"는 안남수(50) 보살을 비롯 회원들은 배운 것을 적재적소에 회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배운만큼 회향하는 것', 그것이 나누는 기쁨을 체험한 봉사회의 철저한 봉사철학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스님은 "박물관에 소장된 훌륭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있다"며 "봉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6일부터 3일간 상반기 정기교육이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타박물관 견학 및 사찰 순례등의 연수를 계획중이다. 또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회화교육 등 종단차원의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쌓게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문화를 전하는 문화포교사들인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실력있고, 친절한 구성원으로 가꾸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양산=천미희 기자 mncheon@buddhapia.com

스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국대 병원 의료비 5~20% 할인 !!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⑲ 제10 법사품

법사(法師)

예로부터 〈법화경〉은 공덕경(功德經)이라고 불리고 있다. 공덕이란 덕(德)을 쌓으면 공(功)이 된다는 뜻인데, 덕이란 바로 베풂(施)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덕이란 베풂(布施)으로 말미암아 공(功)이 된다는 것이니, 이러한 공훈(功勳)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여 지켜주신다(護念)는 뜻이다. 그래서 '법사품'은 곧 새로 뜻을 세운 보살이 중생에게 법을 나누어 주어 두려움(無畏)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왕을 등장시키고 있다.

'법사품'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전이며 이 경의 한 시송(偈頌)이나 한 구절(一句)이라도 받아들여 믿는(信受) 사람은 모두 성불(成佛)한다고 설한다. 물론 성불이란 부처님이 된다는 이야기지만 성불의 조건으로서 모든 번뇌를 멸진(滅盡)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승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대승에 치우쳐 금욕(禁欲)을 근본으로 하는 근본불교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금욕생활이 출가자라는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번뇌를 여의어 해탈에 이르는 길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사품'에서는 이 거룩한 경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넓히는 사람, 즉 해설(解說)·서사(書寫)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남에게 법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래의 심부름꾼(使者), 또는 여래의 대행자라고 한다. 이 경전은 또 여래가 세상에 계시는 현재마저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진대 하물며 말법시대(末法時代) 즉 후악세(後惡世)에서는 이 〈법화경〉을 넓이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며, 여래 멸후에 이 〈법화경〉을 수행 즉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홍경(弘經)의 삼궤(三軌)' 즉 가르침을 넓히는 세 가지의 바른 길이라 하여 설하고 있다.

이 '법사품'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사(法師)'란 불교 전반에서는 법을 설하여 신도를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승려(僧侶)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출가 재가를 불문하고 모두를 법사라고 부른다. '법사품'에서의 '법사'에 대한 원어는 다르마바나카(dharmabhanaka)로서 '설법자'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독송하는 사람 즉 이 〈법화경〉을 신도를 위해 널리 읽어서 들려주는 것을 직분으로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약왕보살을 비롯한 8만의 보살들에게 "출가 수행인이든 재가 수행인이든 천신이나 인간 이외의 것들이 모두 불도를 구해서 이 〈법화경〉의 1게 1구(一偈一句)라도 듣고 비록 한 생각(一念)이라도 기쁨을 내는 이에게, 나는 모두 성불의 예언(授記)을 주겠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여래가 멸도한 후인 미래 세에서도 똑같다"고 설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화경〉을 비록 한 게송이라도 믿어 간직(受持)하고 읽고 외우며(讀誦) 해설(解說)하고 옮겨 써서(書寫)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이 경전에 꽃(華)·향(香)·목걸이(瓔珞)·가루 향(抹香)·바르는 향(塗香)·사르는 향(燒香)·비단 해 가리개(繒蓋)·깃발(幢幡)·의복(衣服)·기악(伎樂)을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는 사람도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수지·독·송·해설·서사의 다섯 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을 5종법사(五種法師)라고 부른다. 이 5종의 수행을 다시 신(身; 서사)·구(口; 독·송)·의(意; 수지) 3업(三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수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하여 정행(正行)으로 하고 다른 네 가지를 조행(助行)으로 한다. 그리고 또 꽃·향·영락 등 열 가지의 공양을 열 가지 경전 공양 즉 10종 경전공양(十種經典供養)이라 부르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여래의 '심부름꾼'·'대행자'

수지·독·송·해설·서사 5종법사 지칭

화산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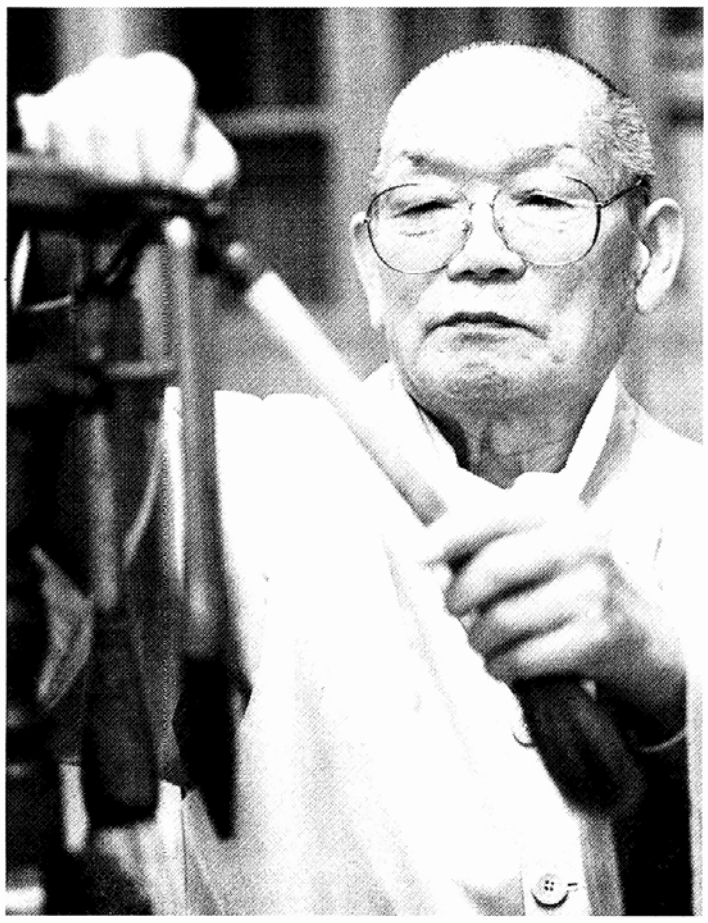
인정많고 소탈…1962년 보광원 창건 포교전념

화산스님은 소탈하고 인정이 많은데다 검소한 성격으로 신도들에게 알려져 있다. 겨울철에는 화분을 방안에 들여놓는데, 스님은 아랫목을 화분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서 잠을 잘 정도로 꽃과 나무를 아낀다고 한다. 또한 절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아 IMF 때 절을 찾아온 노숙자들에게 법당을 숙소로 내 줄 정도였다.

스님은 대구에서만 40년 넘게 포교활동을 해오면서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쌓아오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지역 현안이나 각 사찰들의 대소사 등과 관련해 스님의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스님을 23년째 모시고 있다는 보광원 자혜심 보살(55)은 "연세가 있으신 데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법문을 다니실 정도로 포교활동에 열심이시다"고 말했다.

화산스님은 191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17세 때 통도사 자장암에서 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일본 임제선문학교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으며, 1962년 보광원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포교활동에 주력해 왔다.



◇화산스님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찾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한다.

마음이란 너그러울때
세상을 다 수용하지만
한번 옹졸해 지면
바늘 꽂을 자리도 없어

본래 자리를 모르니 자기 사랑도 빗나가

사람들은 흔히 선(禪)을 무설토(無舌土)로, 교(敎)를 유설토(有舌土)로 간주한다. 즉, 교학은 언어에 의한 가르침이며, 선은 무한한 진여의 세계라는 표현이다. 근자에 와서는 선교논쟁이 수그러들었지만 한국불교 역사에서 이 둘이 서로 흠집내기에 몰두했던 흔적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혹자는 선교논쟁을 정치권의 '색깔론'처럼 소모적인 시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색깔'이나 '네 색깔'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화 산 스 님 (보광원 조실)

잘못돼 가고 있어."

화산스님을 뵙자마자 선이 우선인지, 교가 우선인지를 여쭈었다. 스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스님의 행장을 살펴보았더니 한암스님을 스승으로 선을 공부했으면서도,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이력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산스님의 답변의 핵심은 '불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동문서답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냐. 뻔한 걸 왜 물어. 사람들은 모두가 따로따로입니다. 그저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 했지,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줄 몰라. 부조화와 이기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그런데 불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할 불교가 오히려 욕심을 부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 점 티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불교의 본래 자리입니다."

본래 자리. 사람이건 종교건 세상이건 본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 그대로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억압이 없다면 자유를 알 수 없을 터이고, 진실이 없다면 왜곡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더러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야 무욕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느닷없이 질문이 날아들었다. 적어도 진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너그러운(?) 생각으로, 스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 볼 참이었지만, 얼떨결에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다.

"한명우입니다."

"누가 한명우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질문이 떨쳤다.

"자네 이름은 진짜인가. 지금 한명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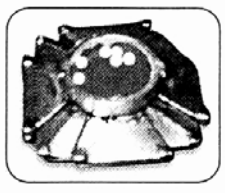
'禪과 敎' 우열 가리는건 무의미

"지금도 선이 우선이니 교가 우선이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우스운 얘기요. 사람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필요하듯이, 선과 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오, 참으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제각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전체가 하나이니, 그 하나에서 우등하고 열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선과 교도 그런 것입니다.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불교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요즘은 그전의 누구인가."

기자를 통어지게 노려보시던 스님께서 갑자기 빙그레 웃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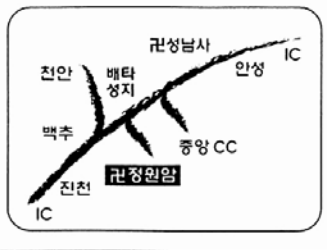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어머니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리는 분명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본래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나쁜 업을 짓게 됩니다. 그 나쁜 업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악업입니다."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구 대한불교 조계종 정원암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사랑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화두

사까기바라의 겨울



사랑이 무참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랫동안 사랑에 대하여 묵묵히 침잠해 오던 저자가 마침내 사랑을 말하고 있다. 단신으로 일본 땅에 건너가 문자 그대로 파란 만장한 길을 거쳐 온 우리 여인네들의 애환을 잔잔히 그리고 있는 이 책은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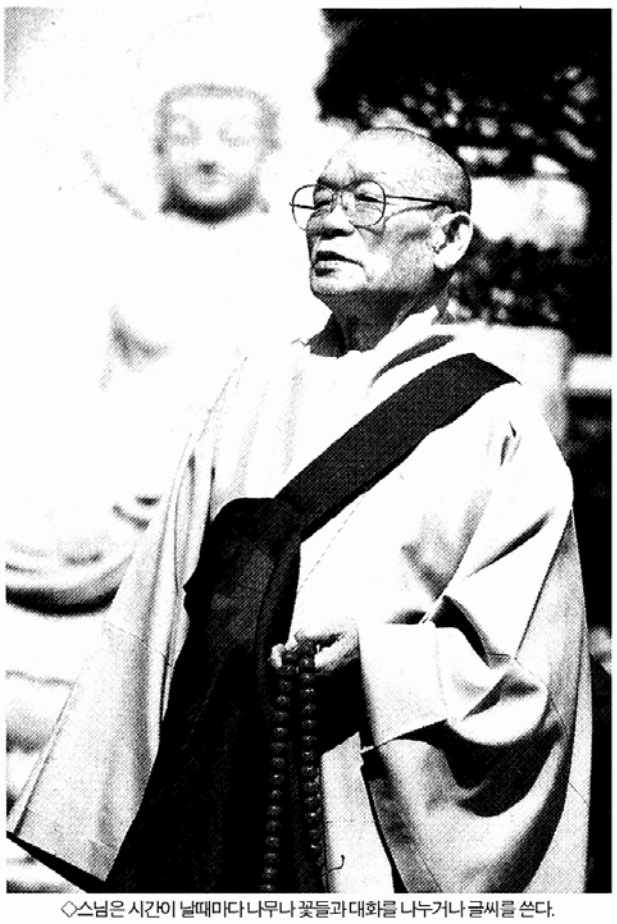
석원연지음/신국판/값 8,500원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최등의영지음/석원연옮김/신국판/값9,500원

선과 21세기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한 안내서
석원연지음/신국판/값6,600원

들꽃누리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38-5 2층 전화 02)455-6365 팩스02)455-6366

양심껏 사는것 진정한 자유의 길



◇스님은 시간이 날때마다 나무나 꽃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글씨를 쓴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아까 선이 우선인지 교가 우선이지를 물으셨지. 본래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교입니다. 본래 자리가 하나인데,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겠습니까. 선에서 말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문자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말들이 진심(眞心)과 다르지 않으니, 어찌 우위를 논하겠느냐 말입니다."

선지식들은 늘 일상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자연 그대로, 사는 그대로에서 묘법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본래 자리도 분명 그 안에 있을 법한데, 도무지 찾기가 힘들다. 서당 개 삼년에 비유해 절집 3년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이다. 찾자고 들면 과연 찾아지기는 하는 것인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내 말과 행동,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화두를 들어봐야 소용없는 짓이지.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곧 본래 마음인줄 모르니, 본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은 끌도 한계도 없는 만법의 근원이요, 묘법의 원리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初心유지 가장 중요

화산스님과 은사이신 한암스님과의 인연이 궁금했다. 화산스님은 먼저 한암스님과 나눴던 선문답을 소개해 주셨다.

"너의 성품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건만, 스님께 이거다 바칠 것 없습니다."

"자성을 알면 바야흐로 생사를 벗는데, 눈 감고 죽을 때는 어떻게 벗느냐."

"본래 입은 것이 없는데 벗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길 네가 가거라."

스승을 향한 제자의 마음이 어찌 애틋하지 않으랴마는 화산스님의 한암스님을 향한 마음은 남달랐다.

"은사스님은 아주 근면하고 청렴결백한 분이셨습니다. 계행을 잘 지키고 검소한 생활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셨지요. 특히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심 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야만 체면이 서고, 자기 이름을 내야만 만족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탐욕만이 가득할 뿐 하심자리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은 다른 사람이 편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편해야 내가 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자기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화산스님의 행장 가운데는 독특한 것이 있다. 통도사 강주를 지내다가 해방이 되자 서울로 올라와서 '불교청년단'이라는 조직에 가입해 불교청년운동에 나섰다. 불교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고 한다.

"스님, 불교청년운동을 하시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이지. 거울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춥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늘 변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물에 비치는 것과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다르듯이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어찌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두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진짜 자기는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 그것은 곧 진실을 본다는 가르침이었다.

"참은 거짓으로 가릴 수 없고,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참이 될 수 없지. 사람들은 생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바로 안다면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말과 행동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니 거울에 비친 자기를 진짜 자기로 아는 것이지."

스님은 소나무와 꽃을 유난히 좋아하신다. 꽃에는 향기가 있어 좋고, 소나무는 푸르러서 좋다고 하신다. 스님이 계신 보광원에는 어른 키 두 배쯤 되는 소나무 20여 그루가 그리 넓지 않은 마당을 큰 숲으로 만들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다른 사찰로 법문을 다니실 때는 빼놓고는 나무가 도반이자 대중이다.

"송의죽정(松意竹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근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양심껏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사실 나는 출가하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와 명예를 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도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을 택한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변함없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지요."

> 소나무·대나무는 항상 변함없어 사람의 근본도 이와 같아야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것을 청했다.

"팔만대장경 속에는 철학과 과학 예술과 문학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경전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래 마음을 모르고는 부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찾지 못한 부처,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찾지 못한 것을 남은 세월동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무렵, 화산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를 때렸다.

"부처라 하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록가 라마 스님



최근 티베트의 링 린포체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전생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다가 금생에 환생하였다는 것을 그들의 전통에 의해 증명받은 분이다. 그의 방문은 불교계는 물론 각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티베트의 록가(Loggha) 라마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는 일곱 살이 되던 해 부모를 따라 달라이 라마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해에 출가, 엄격한 교육을 받고 라마가 되었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대만에 와서 티베트 불교를 전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다.

유학생활을 하던 나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했지만, 내가 본 그들의 생활환경은 너무나 처참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아니었고, 세면장이나 주방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다. 침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새우잠을 자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열악한 환경을 조금도 불편해



하지 않았다. 언제나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조국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겐 오히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유로움이 충만했다. 누구보다 간절했던 그들의 기도와 자연스럽게 넘쳐흘렀던 자비심 어린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한다.

록가 라마는 유난히 겸손하고 친절했다. 그들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 스님들을 만날 때에도 연장자에겐 예절 바르고 아랫사람에겐 자상했다. 입으로는 틈이 있을 때마다 만트라를 외웠고, 교리에 대해 토론할 때는 막히는 바가 없었다. 삼보에 대한 신심도 지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잔잔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수행인의 기상을 지녔던 스님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저러한 기품이 나올까 생각하곤 했다.

어느 해 겨울, 록가 라마와 나는 그의 도반인 잠양(Jamyang) 라마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비롯해 불국사, 법주사 등을 방문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해인사에 갈 때는 눈덮인 가야산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까지 덩달아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다. 아마 어릴 때 살았던 히말라야를 회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행으로 인해 피로했지만, 그들은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지니고 다니는 패엽(貝葉)경전을 독송했다. 일곱 살 때 수계하면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경전을 삼십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오고 있다고 했다.

잠자리를 준비한 뒤 요 위에서 머리맡의 승대(僧袋 : 스님들이 사용하는 천으로 된 가방)를 향하여 티베트식으로 길게 엎드리는 오체투지(五體投地) 삼배를 했다. 그리고는 승대에서 경보(經褓 : 경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는 보자기)에 싸인 경전을 풀러 무릎에 얹어놓고 읽어 내려갔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거의 외워버린 듯, 눈을 감은 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 그들의 독경소리는 매끄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독경 소리엔 사람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게 하는 형언하기 어려운 성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독경을 마치고 경전을 경보에 다시 싸서 승대에 넣어 머리맡에 두고 독경하기 전에 한 것처럼 길게 엎드려 삼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독경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삼배를 한 뒤 잠을 자게 되면 어찌 그 잠자리가 맑지 아니하겠는가. 아무리 수행인이라 하여도 잠들고

> 언행 유난히 친절하고 겸손 독경소리 성스러움 배어나

난 뒤에는 몸과 의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삼매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수행자라면 잠이 들고 난 다음까지 맑고 조용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거지가 얼마나 점잖고 거룩하든지 나는 그때 받았던 감동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지니고 있을 정도다.

여행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온 얼마 뒤, 록가 라마는 나에게 연세드신 라마 한 분을 자신의 사숙(師叔)님이라며 소개하며, "노스님께서는 한평생 인도 성지순례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노스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스님은 참 좋겠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를 하니 얼마나 좋은가"하며 한국에 태어난 나를 부러워했다.

"한평생 성지순례를 하셨다면 인도에 몇 차례나 다녀오셨는지요?" 내가 묻자 노스님은 웃으시면서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지"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하자 록가 라마가 이렇게 부연설명했다.

"노스님께서는 스무 살 때 티베트를 출발하여 인도 전국을 순례하고 몇 해 전 이른 살이 되던 해에 돌아오셨습니다. 인도 한 번 다녀오는 데 오십 년이 걸린 것이지요." 오십 년이면 한평생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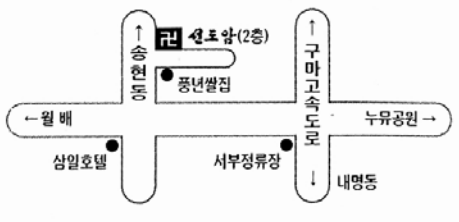
희소식을 드립니다

가정에 버림받고 사회에서 냉대받아 무병(신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등을 위하여 지장도량 선도암 에서는 무상 (無償)으로 특별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안 내

- 천도재는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봉행합니다.
- 접수는 봉행 3일 전에 하시고
- 인원은 10명에 한합니다. 그리고
- 전화상담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30의 3
전화 : 053)623-0236 팩스 : 053)626-2182

선 도 암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탁송으로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卍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춘양목 20자, 24자] 1자 ~ 1자 8치 적송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이종봉 합장 H·P 019)327-0374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추사 김정희의 학문·예술·인생

'완당과 완당 바람-추사 김정희와…'

4월 11일까지 특별전
동산방·학고재 화랑서



◇허련이 그린 추사의 인물화 '완당선생해천일립상'.

19세기 초반 중국과 한반도를 무대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인생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동산방화랑과 학고재화랑은 특별전 '완당과 완당바람-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을 22일~4월 11일까지 연다.

'완당'은 김정희의 호다. 추사로 널리 알려진 김정희는 100개 가량의 호를 가졌다 하는데, 그 가운데 완당은 청나라의 대표적 학자였던 완원(阮元)이 추사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 사 내려준 것이다. 김정희는 30대 이후 완당이라는 호를 가장 즐겨 사용했다.

명지대 유홍준 교수의 〈완당 평전〉(학고재) 발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를 위해 두 화랑은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작품과 서간문 110여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1976년 탄신 200주년을 맞아 간송미술관과 백악미술원에서 열린 기념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가운데 추사 작품은 '단연죽로시옥(丹硯竹爐詩屋)' '소원학공자(所願學孔子)' 등 73점으로, 이 가운데 30여점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불교에 심취했던 완당은 서신을 교류하며 42년간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초의선사를 비롯해 해붕 우담 혼허 백파 스님 등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훗날 완당의 예술이 선(禪) 사상으로 이해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초년에는 예산 화암사에서 지냈고, 중년에 묘향산에 들어갈 때 〈금강경〉을 호신부로 갖고 갔으며, 노년엔 백파선사와 크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말년엔 봉은사에서 생활하며 항상 108염주를 지니고 다녔다 한다. 이번 전시에도 완당이 제주도 유배시절 초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서 스님들과의 깊은 인연과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박물관·개인소장 서화·서간문 110점
추사 작품 73점 … 30점은 일반 첫 공개

서울 전시에 이어 영남대박물관(4월 19일~5월 17일), 국립제주박물관(5월 27일~6월 30일), 광주 의재미술관(7월 8일~31일)의 순회전으로 이어진다.

(02)733-5877(동산방), 720-1524(학고재)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je@buddhapa.com

팔만대장경 소재 연극 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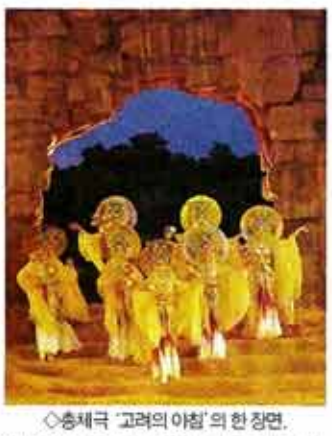
고려팔만대장경 29~31일 日서 공연

고려의 아침 5월 24일 올림픽공원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두편의 대형 연극이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극단 현대극장이 29일~31일 일본 동경 신국립 중극장에서 한·일 월드컵 기념으로 고려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고려 팔만대장경'을 공연한다. 99년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팔만대장경의 지작을 통해 국난극복을 염원했던 고려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의지를 그려내고 있다. 뮤지컬 '고려 팔만대장경'은 일본 공연 이후 '영원한 사랑의 강'(부제: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라는 제목으로 4월 6일~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도 공연된다.

월드컵 기념 총체극 '고려의 아침'은 5월 24일~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막을 올린다. '고려의 아침'에서 부각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다. 몽골군 칼끝에 몰려싸인 고려 임금과 공주, 각료들이 벌이는 탑돌이 의식과 호국법회의 장엄한 정경이 평화의 힘을 강조한다. 이는 21세기 인류를 향해 띄우는 평화의 메시지로, 월드컵 정신의 구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체극 '고려의 아침'의 한 장면.

이처럼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두 편의 공연은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그 속에 담긴 국난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국내외 관객에게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영방 作 '음필압'.

고승명인 서화 도예展 열어
실천불교승가회 10돌 기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이하 실천승가회)가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을 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0주년을 기념하고, 불교NGO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서옹, 석주, 석정, 혜정 등 원로 스님들과 송영방, 이명우, 이돈흥 등 불자 화가들이 기증한 산수화, 수묵화, 서예작품 등 약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02)725-4277

용정리 와당 中國 '북조식'

조원창 씨 '남조원류' 통설에 이의제기

웅진 천도 이후의 백제 와당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을 깨고, 북조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는 논문이 나왔다. 와당은 목조 건물의 처마 끝에 쓰이는 막새기와다.

조원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씨는 최근 나온 〈백제문화〉(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31집에 발표한 논문 '웅진 천도 후 백제 와당의 중국 남북조 요소 검토'에서 "부여 지역에서 발견되는 백제 와당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꽃잎이 둥글거나 끝에 돌기가 달려 있는 원형돌기식 연화문이 대부분이지만 부여 용정리 절터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그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연꽃 끝이 뾰족한 이런 양식은 중국 북조 문화에 그 원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부여 용정리 절터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의 특징은 우선 꽃잎의 끝이 뾰족한 판단 첨형 양식이라는 데 있다. 가운데 부분인 중방이 꽃잎 부분인 화판에 비해 약 1.5배 가량 크고, 꽃잎과 꽃잎 사이의 간판이 역삼각형이 아니라 짧은 마름모형이라는 점, 꽃잎과 외곽을 구분짓는 입종의 태두리인 원권대(圓圈帶)가 없다는 점도 독특하다.



◇부여 용정리사지에서 출토된 단판 8엽 연화문와당. 중국 북조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남조식과 문양 판이
중국 북위 석굴사원 연화문과 동일

조 씨는 "이러한 특징들은 남조의 영향을 받아 당시 유행했던 판단융기형 또는 원형돌기식 와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양이다"며, "중국 북위의 석굴사원 안에 표현된 연화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조의 영향을 받아 6세기 초 등장한 판단 첨형 양식은 6세기 후반부터 남조의 원형돌기식 연화문에 흡수돼 갔으며 서혈사터에서 출토된 와당에 이르면 북위 양식은 첨형(尖形)만 남게 된다고 조 씨는 덧붙였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고려 청동불좌상 발굴

강진 고성사서 높이 51㎝ … 13~14세기 조성



◇전남 강진 고성사에서 19일 발견된 청동불좌상.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보살좌상이 전남 강진 고성사(주지 현주)에서 발굴됐다.

강진군은 19일 "사찰 경내에 화장실을 새로 짓기 위해 굴착기로 지반 정리를 하던 인부들이 지하 20㎝ 깊이에서 고려 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보살좌상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상은 높이 51.5㎝(머리 높이 16.8㎝) 어깨 폭 27㎝ 크기로 머리 위 보관과 오른쪽 팔목 아랫부분이 훼손돼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불상을 본 성춘경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은 "상호나 양식면에서 볼 때 고려 후기인 13~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살상은 오른쪽 다리는 구부리고 왼쪽은 가부좌를 튼 반가상 형식을 하고 있는데, 고려 시대 반가상은 흔치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성 씨는 "여래상이 아니라 보살상인 것만큼은 확실하나 보관이 없어 미륵보살상인지 관세음보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문화재청에 보고 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사찰 경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됐을 때 1년 동안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고성사는 지난 88년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절이다.

불교관련 학회지
발간 잇달아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인도철학회가 최근 잇달아 학회지를 발간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두 차례 학회지를 내고 있는 이들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맞춰 영문 초록도 함께 실었다.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도 〈밀교학보〉 3집을 최근 내놨다.

〈불교학 연구〉(불교학연구회) 3집은 지난해 학술발표회와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됐던 논문 7편과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의 '〈성유식론 요의등(了義燈)〉의 원측설 비판' 등 8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선학〉 3호(한국선학회) 역시 차차석(동국대 강사) 씨의 '석옥청공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비교' 등 8편의 논문을 담았다. 인도철학회는 지난 해 12월 열렸던 정기 학술회의 때 발표됐던 논문 12편을 모아 〈인도철학〉 11집 2호(통권 12호)를 발간했다.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이 펴낸 〈밀교학보〉(연간) 3집은 김영덕(위덕대) 교수의 '밀교의 한국적 수용의 일례' 등 10편의 논문과 지난 해 11월 종조탄생절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됐던 김무생(위덕대) 교수의 발표문, 이에 대한 논평문과 답변을 함께 담았다. 2집에 이어 산스크리트 불교탄드라 문헌 목록인 'The List of Sanskrit Buddhist Tantras(II)'를 부록으로 실었다.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창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인도의 이상·현실 잇는 징검돌

'배낭에 담아온 인도' 김호성 지음



4차 걸쳐 다녀온 여행보고서
마치 세밀화 보듯 현장감 생생

시골 사람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한 사람은 서울에 가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니다. 결론은 안 가본 사람의 승리. 우격다짐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우스갯소리는, 인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할 때도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우격다짐'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도를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의 이상은 '환상'에 가깝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한 나라, 거지가 구걸을 해도 비굴해보이지 않는 나라…. 인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의 몇몇 조각들이다. 물론 이를 다 환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시각에는 '물욕은 최대한 버리겠지만 구걸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번이라도 인도를 가 본 사람이라면 느꼈을 것이다.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파리떼처럼 몰려드는 거지떼를 맞이할 때의 당혹감. 조금 상황정리가 되면 당연히 머리 속에 똬리를 틀게 되는 한 생각. 이 '무책임한 평화'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매력적인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매력은 물질적 풍요에 역비례하는 정신의 빈곤이 가속화할 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만나야 한다.

〈배낭에 담아온 인도〉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4차에 걸쳐서 가족과 함께한 인도 배낭여행 보고서다. 그러나 결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기록인가 하면 인도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전문가적인 안목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하여 이 책은, 인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인 '징검돌'이 된다.

여행기를 읽는 즐거움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추체험에 있다면, 이 책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백화점의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처럼 가지런하게 정리된 정보 따위는 없다. 필자의 박학을 과시하는 듯한 지적인 풍성함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이 이 책을 빛나게 한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가난한 릭샤꾼과 몇십 루피의 돈 때문이 실랑이를 벌인 일까지 솔직히 적음으로써 인도의 현실에 밀착한다. 그 시시콜콜함이 잘 정리된 여행 안내서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얘기들 속에 잘 익은 과육 같은 인도의 이상을 펼쳐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책의 장점은 세밀화를 보는 듯한 현장감이다. 마치 독자가 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할 정도의 생생한 기록은 한국과 인도, 필자와 독자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놓는다.

4번의 여행기를 독립된 장으로 묶었고 각 장마다 간단한 지도로 여정을 밝혔다. 여시아문 刊, 값9천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인도, 신과의 만남' 김홍옥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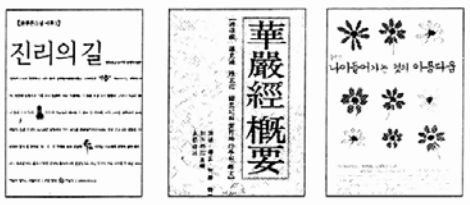
인도인의 삶·종교·철학 해설

신간 〈인도, 신과의 만남〉은 힌두교를 주제로 인도인의 일상에서부터 그들의 삶과 종교, 그리고 철학의 핵심을 해설하고 있다.

먼저 그 장의 주제에 어울리는 인도의 일상 풍경을 소개한 다음, 그와 관련된 힌두교의 신이나 의례, 개념을 설명한다. 첫 장 '힌두교의 개념'에서는 힌두라는 용어에서부터 의례행위인 푸자, 힌두교리의 주요 토대인 다르마와 카르마, 카스트라고 알려진 인도 사회 질서 등을 살핀다. 그리고 '신과의 만남'에서는 신과 만나는 의식인 푸자의 진행과정을, '성소에서 사원으로'에서는 힌두 사원의 유래와 함께 가르바그라라 불리는 사원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사원의 구조, 사원의 지역적 특성, 사원의 운영 등을, '행렬하는 신상'에서는 성소와 사원의 종교행렬과 축제에 대해 다룬다. 또한 '노년과 초탈'에서는 힌두 교도의 말년의 삶을 다룬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인도의 각지에 머물며 인도의 장인 정신, 힌두 전통, 힌두 의식의 기록과 연구를 한 문화인류학자이자 사진가인 아펜젤러 하일러 씨. 155컷의 컬러사진은 인도인들의 삶과 종교 행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빈치 刊, 값 3만8천원.

새로나온 책



▲진리의 길(청화큰스님어록간행위원회 편저)= 1982년부터 20여 년 동안 청화(성륜사 조실) 스님이 설한 법문 가운데 염불과 참선에 관한 요지만을 간추린 다이제스트 법문집. 1편 '영원히 굴러가는 금강륜'은 청화스님이 제방선원과 강원 그리고 사찰에서 행한 법문이고, 2편 '우리 중생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정토삼부경〉 등 책의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3편은 이남덕(전 이화여대) 강옥구(시인) 씨 그리고 월간 정신세계 기자와 나눈 회견기다. 사회문화원 刊, 값 1만5천원.

▲화엄경 개요(현석 스님 역주)= 청량소와 통현론, 수현기와 탐현기에서 각 품의 요지와 경문을 간추렸다. 청량소는 대만에서 간행된 화엄경소초를, 통현론과 수현기 그리고 탐현기는 신수대장경을 저본으로 했으며, 간추린 경문은 청량소와 통현론 수현기 탐현기에서 인용된 구절을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 합론〉과 무비스님의 〈현토 화엄경〉, 〈한글 화엄경〉을 참고했다. 우리 출판사 刊, 값 2만5천원.

▲나이 들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세 외 편저, 김문호 옮김)= 집안에서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산악 자전거 회원이 된 할머니, 수상스키를 타는 할아버지 등 아름다운 노인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환희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시작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어,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모든 이들에게 인생을 통찰 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 刊, 값 8천원.

▲헬렌 니어링, 또 다른 삶의 시작(엘렌 라콘테 지음, 황의방 옮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실천을 통해 보여준 헬렌 니어링. '헬렌 니어링의 깊은 영성과 아름다운 노년'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그의 아름다운 노년과 함께 그녀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는가를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뜬 후 세계 곳곳에서 어떤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려 주고 있다. 두레 刊, 값 8천원.

'부처님을 그리면 부처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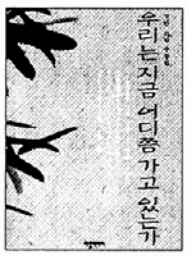
티베트 불화 색칠하기책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직접 부처님을 그리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경(寫經)과 함께 사불(寫佛)은 중요한 불교 수행법의 하나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사불 수행의 전통을 이어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이 〈티벳 불화 그리기〉 〈부처님을 그리면 부처님이 됩니다〉 〈티벳 만달라 색칠공부〉 등 세 권의 티베트 불화 색칠공부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담긴 티베트 불화인 탕카와 만다라 그림들은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받은 서양 화가들이 그린 것이다.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장 현장 스님은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화엄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티베트 불화 그리기를 통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연지문 刊, 각권 5천원. 문의 (061)852-3038

'우리는 지금 어디쯤…' 지안 스님 지음



"모든 것이 옮겨가는 도정(道程)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면, 인생은 분명 순례의 길이다.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은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여수(旅愁)의 고단함을 달래면서 덧없는 세월 속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양산 통도사 반야암 암주로 있으면서, 영천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는 지안스님이 펴낸 첫 수상집이다.

수행생활을 하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정리한 이 수상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중노릇 잘해라'에서는 30여년전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중노릇 잘하라"라고 당부하시던 은사인 벽안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원(無願)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제2장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과 제3장 '속세를 바라보니'에서는 산사와 도심을 오가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또 생활속에서 맞부닥쳤던 갖가지 문제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솔직담백하게 털어 놓았다.

또 제4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는 우리 존재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찾자고 역설하고 있으며, 제5장 '법문 한 마디'에서는 지장보살의 원력·이땅에 자비광명을 등의 법문을 통해 대비심의 사회적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다할미디어 刊, 값 9천원

수행생활중 느낀 수상집

'그곳엔 부처도…' 대우 스님 지음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는 수행의 길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설해진 책이다.

대중들을 위해 경론과 공안에 담긴 참 뜻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설파함으로써 화엄 일승법의 요체인 '마음뿐인 도리'를 밝혀내고, 선종의 공안이 갖고 있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지취(旨趣)를 드러내고 있다. 화엄의 일승과 선종의 공안을 함께 아우름으로써, 교학을 쫓다가 개념과 사고의 장애에 빠지거나 참선만을 좇다가 공허한 무기선(無記禪) 및 이승의 온갖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세히 법을 설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 양자역학이 도달한 물질관의 함의를 자세히 밝히면서, 이를 '아무런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고 잠잠히 부처 땅을 밟는' 불교 유심(唯心)의 도리와 대비시켜 과학적 사고로 단련된 현대인들이 유심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은이 대우스님은 20년전 현정선원(www.fuoyee.or.kr)을 개설하고, 일승법(一乘法)을 펴며 불교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다니?' 등 일상사 가운데서 화두를 잡아,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부지 불식간에 독자로 하여금 '진리 탐구'의 놀라운 기쁨에 빠져들도록 이끈다. 현암사 刊, 값 1만5천원

양자역학 - 唯心 대비 설명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판사
1	회색 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 외	민 족 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4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8	생활수행이야기	원 황	불 광
9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10	화엄경을 읽는다	기무라 키요타카	불고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도가(道家)의 비전(秘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대한 강의

오쇼는 '황금꽃의 비밀'을
아주 고대(古代)의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 '황금꽃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비의적인 전문 서적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육체 이상이 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이 경전은 그대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비밀 중의 비밀 황금꽃의 비밀 신간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The Secret of Secrets 상 하 출간 !!!

'황금꽃의 비밀'은
도가(道家)의 오랜 비전(秘典)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대해
인도의 깨달은 스승 오쇼가 강의한 것으로,
'황금꽃(金華)'으로 상징되는 빛의 수련법과
그 원리와 효과, 수련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쇼 | 신국판 | 각 권 [illegible]

인도는 세상에 커다란 선물들을 주어 왔다.
아티샤(Atisha)는 그 커다란 선물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가 보디다르마(Bodhidharma)를 중국에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아티샤를 티벳에 주었다.
아티샤에 대해 명상하라, 그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형의 지침서이다.
그것은, 그대가 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이다.
나는 그것을 '지혜의 서(The Book of Wisdom)'라고 부른다.

- 오쇼 -

智慧의 書 신간

상 하 출간!!!

지혜의 서
OSHO
The Book of Wisdom
아티샤 (Atisha) 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한 강의

오쇼 | 신국판 | 각 권 14,000원

전화 02) 711-4227,8 | 팩스 02)711-4229 | www.goldenflower.co.kr | 도서출판 황금꽃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1600여종의 불교용품, 불교와 관련한 모든 상품을 마하몰에서 준비하십시오!

공지사항

삼성, 국민카드 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5만원 이상 온라인 구매 고객)
기간 : 1) 삼성카드(4월31일 24:00까지) / 2) 국민카드(5월31일 24:00까지)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신상품



국 화 차

금국(金菊)은 국화 고유의 맛과 향, 색을 깨끗하게 살리고, 특유의 강한 향기와 독성을 제거한 차입니다.

40,000원



건강향기방석

천연약재(32종)와 향재를 이용, 인체에 좋은 효능을 발휘할수 있는 배합율에 의하여 만들어진 환(丸)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45,000원



미농6종혼식

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쌀입니다.

47,700원



촛대,향로(기정용)

촛대:9cm(넓이) 12Cm(높이)
향로:9.5cm(지름) 7Cm(높이)

105,000원



교리기도염주

월성(月星)주는 온 우주의 진리
수정은 마음(心)
호안석은 사업, 소원, 보호신장을 뜻합니다.

35,000원



참숯 베개(천연염색)

살균작용이 뛰어난 참숯과 메밀을 사용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스트레스 및 수험생의 숙면 효과 등에 좋습니다.

35,000원

이달의 히트 예감 상품



순금달마 福 항아리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키는 달마상을 순금전사 소성하였습니다.

가격:~~240,000~~원
특판가:149,000원



순금금강경백자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불심 깊은 작가의 불력과 예술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가격:~~790,000~~원
특판가:198,000원



한방 폴로 T

숯, 황토, 쑥 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T 셔츠 입니다.

25,000원

다량주문 추천 상품



첫상무늬



첫잔무늬

다 포

크기 : 가로39cm×세로50cm
- 200장이상 구입시 행사명 및 단체명 무료 인쇄
- 300장이상 구입시는 일정 금액 할인

흰색 : 800원
회색 : 1,200원



광목 다포

재질 : 면
크기:43cm×58cm

6,000원

베스트 음반







● 대부모은중경, ● 관세음보살 보문품 ● 천수경
(영인스님 비디오)

아름다운 산사의 배경과 함께 청아한 독경소리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갈하게 하여줄 것입니다

각각 20,000원





● 상주권공, ● 영산
(송암큰스님 유작)

중요문형문화재 제50호 범패보유자 / 송암 큰스님의 유작집(CD 5장 구성)
상주권공:송암스님 범패 시리즈 1~5 | 영산:송암스님 범패 시리즈 6~12

50,000원 | 70,000원



혜암큰스님 추모다큐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추모다큐 비디오

20,000원



정율스님 찬불가

정율스님의 찬불가 모음집입니다.

10,000원



김희진 법회찬불가

10,000원



우리말 묘법연화경

7년 인고끝에 내놓는 영인스님의 대장정

229,500원



영인스님 염불시리즈

255,000원



향 명상음악 1,2

각각10,000원



성수스님 염불시리즈

170,000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용품

초파일 등



캐릭터 비닐 만월등 2,000원

각종 유니폼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성인용 썬캡 3,0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양면 점퍼 50,000원

봉축캐릭터 응용 팬시 용품



캐릭터 풍선 300원
100단위 포장(대롱포함)
바람넣는 펌프 있음



캐릭터 부채 700원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림



방생 타이슬링 1,000원
100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연꽃타올 4,000원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타이슬링 700원



봉축 버튼 400원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3시간 / 보냉 :6시간

천진동자 라이트펜
10개들이 한세트 25,000원

봉축 행사용품

90cm×6m(40,000원),8m(50,000원),10m(60,000원),12m(70,000원)
※ 폭 105m,150m제작 가능

90cm×210cm 장당 40,000원

20cm×30cm 4,000원

엠반 리본 250원
(왼쪽부터 3개)
고급 리본 350원
(오른쪽에서 두번째)
귀빈용 3단 리본 1,000원
(오른쪽에서 첫번째)

세로 현수막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애고·욕심 때문에 한생각을 내지 못해

道는 내 생각·마음속에 있는 것

제주에서 큰스님들,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불교는 목탁치고 염불하면서 점이나 보는 마구니라고 타종교인들이 모순된 말들을 합니다만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모두가 지구라는 한 버스 안에 앉았다고 봅니다.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네 자리 내 자리,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불교의 심오한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죠.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돌 하나의 생명도 모두가 '불(佛)' 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은 전부 불(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끝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불교란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우주삼라만상이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진리를 순응해야 하며 시대가 발전하고 변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용어를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대의 용어로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종교를 막론해놓고 바깥으로 끄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부터 발견해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이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부터 발견해라"

나무 잎새나 가장구가 무엇으로 인해서 푸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싹이라면 근본 불성은 바로 영원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 만이, 쉽게 얘기해서 철분, 지분, 수분을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태양열과 공기력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대 성인들도 말씀하셨거니와 부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마 지금 부처님들도 말씀하실 겁니다. 제 뿌리를 믿어서 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만 가지 맛이 남으로써 그 맛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각자를 보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틀리는 게 있는지. 여러분 몸 속에 자생중생들이 꽉 찼습니다. 자생중생들이 세포 하나 하나에도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자생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만이 제도를 하고 화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견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멈춰서 병이 생기고 파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공간 안에 많습니다. 이 몸뚱이를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몸뚱이 속에 모든 자생중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악업 선업으로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한 컵을 먹었다 합시다. 나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共食)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일할 때도 같이 행을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구요. 내가 봤다 할 수가 없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번 게 아니죠. 모두가 나 혼자 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높다 낮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높다 낮다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죠.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사에 나, 나, 나,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늘 얘기하듯이 오신통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행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입력이 될 거고, 못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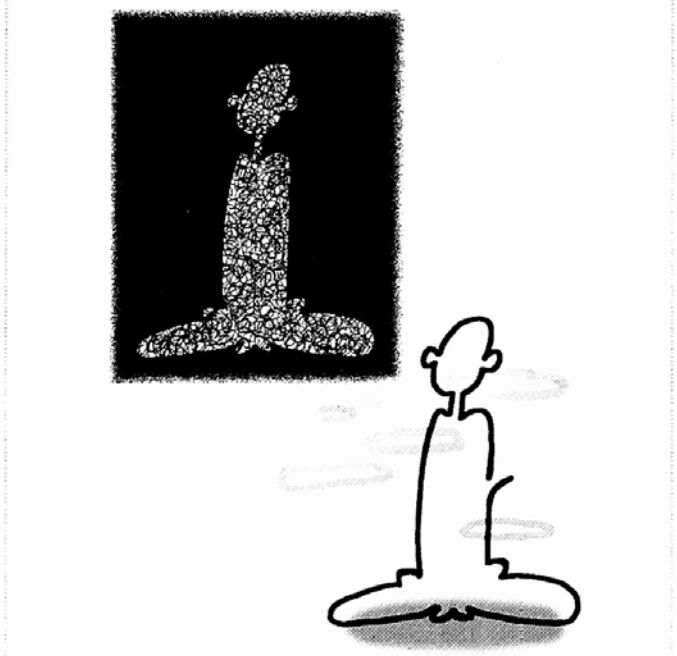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못 하는 대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그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애고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성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세균성이라고 하고,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대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깐 나오는 구녘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에 입력된 게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물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세계만이 등장을 해서는 절대 올바른 과학이 아니며 올바른 천체물리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학, 올바른 철학이 아닙니다. 단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부피가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따지면서 발전해 내는 것이 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스스로 마실 줄 알고, 잠자고 싶으면 잠잘 줄 알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줄 아는 진짜 자유인이 되어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생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제도가 된 거고 천백억화신으로서, 지금 현재의 말로써는 원자에서 분자로서 입자가 수 만 개가 나가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이 돼 준다고 하죠. 잘 생각해보십시오. 마음은 체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가는 아촉불 자체가 전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몸 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잘 제도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업보나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을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나오는 구녘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 애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삽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광력이라든가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 각자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한생각에 의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것을 습에 끄달리고, 애고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기 때문에 한생각을 자아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듯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 뜻이 무엇인가? '각자 너희 몸 속의 자생중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라는 어항에서 벗어나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라' 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시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 법계를 한 찰나에 둘러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부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선지식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더라구요.

여러분은 너무나 도의 진리를 가깝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온통 욕심을 내게 하고 분기가 나게 하고 별짓 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선장으로써 다스리면서 나오는 구녘에다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는 구녘에다 다시 맡겨놓지 않는다면 업보가 없어질 수가 없고, 번뇌망상이 녹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서 조각조각 가루가 된다 한들 뭐이 속이 상합니까?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다면 부처님 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도 형성될 때에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대천지 세계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검은 대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대 우주를 형성시켰고, 별을 형성시키고, 태양을 형성시키고, 위성을 형성시키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형성시켰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처럼 나가는데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한테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도들이 오든 안 오든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게 물건을 사러가면서 가게 주인한테 돈만 줄려고 가는 게 아니죠.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돈을 내놓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돈 준 사이도 없고, 저쪽에는 물건 준 사이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도는 생활 속에 있는 것,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습관에 의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부적을 붙여야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적이 아니면 의지를 못하죠. 지금처럼 밝은 세상에 마음을 발전을 시켜야 만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동그라미를 돕에 세워놔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의 보람을 느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물질계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는 아주 낮습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등해야 이 세상에 혼란이 오지 않을 텐데, 혼란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이 모두 혼란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애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천지 차이로 차원이 달라지니까 무슨 도깨비처럼 날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싹이 자기 뿌리를 안 믿고 딴 나무를 믿고, 딴 나무의 이름을 믿고, 딴 형상을 믿는다면 에너지가 자기 나무 싹으로 올까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라고 했고, 달마대사께서도 너부터 알라고 했고, 모든 부처님들, 선지식들께서 다 너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나를 모른다면, 과거의 나를 모른다면, 과거의 나를 잡고 가야만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타파할 수 있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모른 체, 즉 말하자면 자기 뿌리를 모른 체 하고 딴 이름을 믿고 딴 형상을 믿고 온통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될 뻔한 일입니까?

그러고도 정신계가 물질계와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지금 의학계에서도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대치를 할 텐데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만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학술을 배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 모두가 마음 빼놓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도 한 40%밖에는 이끌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60%는 누가 끌고 갑니까? 이거는 정신계에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즉 심성에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자 여러분은 둘레가 어떠니,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 컵이니,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연구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몇 해가 됐느니 하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 하늘 무너져 내려도
> 풀 한포기 살아있으면
> 부처님 법은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도리는, 보고 알았으면 갖다가 먹을 줄 알고, 대치할 줄 알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만이 '도(道)' 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도가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찰나를 뒤집어 보지 못하고 업식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영 고쳐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상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엔 없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부터 알라고 하니까 저놈 저거 이상스런 말만 한다고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거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혼동에 빠진다거나, 지금 청소년들이 1/3이 어떡하고 지내나 한번 보세요. 많이 보시죠? 부모자식간, 부부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만약 바깥으로 잘못됐다면, 아들이 학교를 안 다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행하십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하러 가랬더니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오는 거냐"하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욕을 퍼붓죠? 그러나 그렇게 욕을 퍼붓고 야단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욕을 하거나 때려서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마음으로 잘못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들어오거든 "아이구! 너 배고프지 않았니? 어디 가서 놀다가 왔니? 배고프지 않니? 용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안으로는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 저 아이의 뿌리와 내 뿌리와 둘이 아닌 까닭에 아들의 마음이 저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어!' 하고 맡겨놔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천리 만리를 통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보지 못하니까 무시하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답니다.

어느 신도분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등록금을 주면 갖다가 술 먹어버리고 그러던 거를 자꾸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관하다 보니까는 아들에게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달라지면서 하루는 항아리를 닦고 있는데 "피곤하죠, 엄마!" 그러면서 "내가 좀 들어 드리고 닦아 드릴께요" 하더니 그 날부터 착해져서 지금까지 효자라고 합니다.

자비 베푸는게 진짜 사랑

내가 한마디 할 것은 생활 속에서 남편이 잘못하거나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로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맡겨놓고 화목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을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야.' 하고서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전기가 통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과거 무심과 현재 유심이 둘이 아니게 통해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화목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행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처음 와서 보니까요, 오늘 세 번 째 천도를 했습니다만, 4·3 분규 아시죠? 산 속에 숨어 있으면서 제주도의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이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저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그냥 샌드위치가 돼서 다 숨으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다가 죽은 영혼들이, 땅속으로 돌 틈으로 은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영혼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한때 뱀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래서 돌 틈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 영혼들이 다 혼비백산을 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탄생이 될 수밖엔 없죠.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아마 곤욕을 치렀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전부 집가로 막 기어들어서요. 그러나 지금은 별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면서 말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가는 것도 없어요. 나 자체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공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공했으니까 거기에 착을 붙이지 말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놓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 하고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 거를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바깥으로 온통 다니면서 야단법석들을 하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글쎄?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상 생활이 다 그래요. 내 원자에다가 맡겨놓으면 원자가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화해서 다니면서 마음 조절도 하고 안 되는 거는 되게도 하고 편리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심성과학이라는 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심성과학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고, 부처님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없으리만큼 이 세상 만물만생이 전부 감사한 거죠.

자비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모두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서로

☞ 18면으로 계속

말없이 자비 베푸는 것 참사랑

☞ 17면에서 계속

고통을 면해주면서, 고통을 면해주면 스스로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입술에 붙여 가지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못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변덕쟁이들이 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러고도 남편이든 아내든 길게 병을 앓게 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말로 하지 마십시다. 진정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자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부터 알아야 일체제불의 마음을 송

일체만물의 생명이 佛 뜻으로 통하는 것이 敎

두리째,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그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죠? 여래고요. 여러분의 집이 헐어지면 누가 고칩니까? 집 주인이 고치죠? 타인이 고쳐주는 법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의 집과 같은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

마음으로 잘못된 것 마음으로 고쳐야

로 진정코 맡겨놓을 때 바로 마음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측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은 집을 고치는데 모자라는 데는 보태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게 되죠. 몸도 내 몸입니까? 중생들의 집합소죠.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크기로는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고, 작기로는 좁쌀, 아니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먼지 한 알갱이에 우주대천세계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절에 가서 스님들더러 잔뜩 차려놓고 재를 지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조상들이 들어와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돈 얼마 들여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천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공부를 하면 조상들이 그 마음 속에 쳐 들어가서 우주 삼라만상이 툭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들어갈 문 나올 문도 없으니 자유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 그 자리에서 찰나에 그냥 천도가 되는 거지 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누가 시식을 해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방이래도 하나 얻으라고 주시고는 설렁설렁 오시니까 재를 지내달라고 한 사람이 천도 안 시켜준다고 야단법석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천도 안 시켰다고 생각하거든 이 돈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나도 그 짓 잘 했으니까요.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은 한생각에, 한 찰나에 우주 천지를 돌고도 남음이 있어요. 떡 하나를 해놓고 천도를 시켜도 이 세상 만물만생, 죽은 세상 산 세상 다 먹고, 일체제불이 다 받고도 그 떡 하나는 되 남았어요. 되 남아요.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얼마나 광대무변한 법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천 오백 년 전에 가신 게 아니고, 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이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의 씨앗이에요. 종자예요! 부처님의 종자하고 여러분의 종자하고 다른 겁니까? 깨 씨 하나를 심어서 씨를 받았다가 또 심으니까 무수한 깨 씨가 나오니까 다 똑 같애요. 허허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더 발전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하며, 현재에 생활하는 것이 심성과학이며, 또 심성의학이며, 60% 모자라는 거는 스스로 채워서 집을 고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집을 남더러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뼈가 어디 부러졌을 때는 의사를 불러서 이어 달라고 하지만, 내 집이 안으로 곪아터지고 안으로 잘못된 거는 주인이 고쳐야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싱긋이 웃고 그냥 돌아설 때가 있죠. 좋아서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럴 때, 또 부부지간에 헤어질 단계까지 갔다가도 "저희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 이럴 때 좋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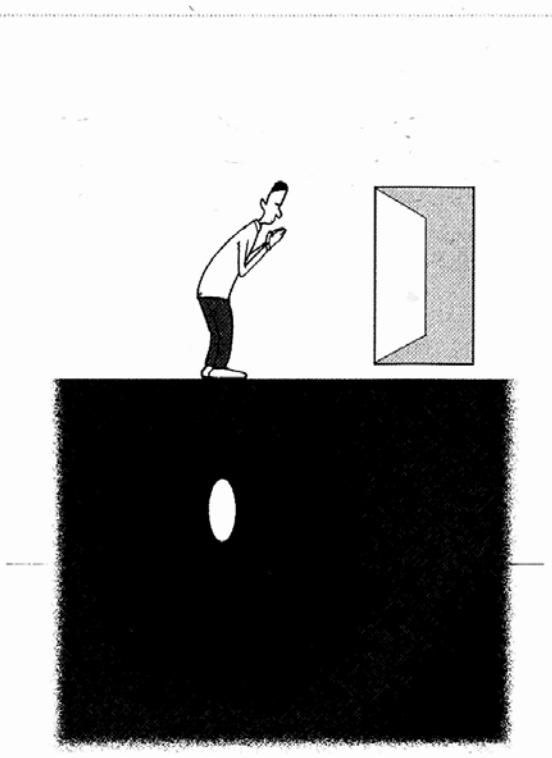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찰라에 우주 돌고 남아

불법 영원 … 우리가 부처님 씨앗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게 아냐. 당신의 전깃줄하고 내 전깃줄하고 만났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과 · 업보 얽히고 설켜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건만 모두 유전성과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에 얽히고 설켜 가지고 한 치도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를 나무라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 뿌리에 맡기세요. 남편의 뿌리, 아내의 뿌리, 부모 자식의 뿌리가 모두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력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쓸 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끌어쓰십시오. 전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좀 착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나라도 공덕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유하더라도 아주 일등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정신계를 길러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법문 중에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 본 마음자리에 관해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여기 오신 많은 불자님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스님: 그 말을 또 해달라구요? 하하하.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나오거든요. 바로 내 영혼의 근본과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내가 형성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과거에 산 것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데 화가 나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고 행복해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딴 데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감사하다고 놓고, 행복하지 못하면 마음을 돌려서 되놓고 관하는 겁니다. 진실로 되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니까요. 실행이 돼 나가는 반면에 우리가 주고받는 사이 없이 주고받게 되고 가고 옴이 없이 찰나찰나 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지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쉽겠지만, 돈 한푼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하혈을 한다면, 자식들은 올망졸망한데 돈 한푼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겠죠? '알았어!' 그러면 되지. 근데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알았다고 하는 건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지극할 테죠.

여러분! 한 번 접해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 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하고, 마음 속에 들은 의식들도 개혁을 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발전을 못 한다면 한치도 자유스럽게 살수가 없습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은 부처님 형상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다 하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부처님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체 만물도 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스승으로 보입니다. 스승으로 보이는 일체 만물에게 정법으로서 법을 설해주어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도하신 분들도 여기 잔뜩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도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으로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묘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서 점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아 계신다 해도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 자리에 관하라 하셨는데

나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과거에 살던 나를 잡고 들어가야 문 없는 문을 접하게 되고 죽은 세상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죽은 세상을 다 알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치도 마음대로 못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려면은 반찬가게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내면의 자기 뿌리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모든 걸 일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평등공법의 문 없는 문을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위 법문은 1994년 5월 29일 제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 폭력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뭇생명의 조화로운 삶을 가르치셨고, 평생을 몸으로써 실천해오셨다. 우리 비구니는 그 분의 삶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삼고 살겠다는 서원을 이룩하고자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자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 '북한산 살리기 정진도량'인 송추 원각사 입구에서 이루어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비구니 3명에 대한 LG건설의 폭력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산에 깃든 뭇생명과 수행도량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비구니스님들의 간절한 서원을 폭력으로써 짓밟으려 했다는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십여 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쳐 기도 중인 스님들을 법당에서 끌어내고, 팔다리를 나누어 잡고 500미터를 끌고 다니다가, 돌무더기에 팽개쳐서 6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또 폭행의 와중에서 비구니스님에게 가해진, 차마 글로 옮기기에도 저급한 폭언을 행해 폭행을 당한 스님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상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LG건설의 공식적인 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양식마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수행자의 자세로 그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나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비구니회는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이후의 상황을 항상 주시할 것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취소될 때까지 기도정진과 관통도로 저지 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을 부처님 앞에 서원한다.

우리의 요구

1. LG그룹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비구니스님들에 가한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4대 일간지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LG그룹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노선 전체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이번 폭력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북한산 관통노선을 즉각 철회하라.
4.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일천만 불자와 전국 여성성직자와 연계해서 모든 LG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북한산 관통노선의 철회를 위해 산문폐쇄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46(2002)년 3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선문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 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www.bulljichon.com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최고 조용하고 산세좋고 물좋은 암자에서 가족처럼 같이 불사하면서 사실분
▷50세이상 비구스님
031)582-063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하동골토굴 017)859-1389

평생 함께 사실 스님을모십니다.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진사
055)248-264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가능자 특별우대
032)679-3490

수행하는 스님에게 토굴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거창 토굴 전화
055)943-7122
대구 053)625-5960

행자로 생활하면서 봉고운전 또는 다른 직무를 병행할 수 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019)438-3884
055)741-7429

행자 모심
(타종단 스님 조계종으로 계종 환영)
▷ 45세 미만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지원
02)917-3363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 대지 242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055)391-5369
016)772-536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7호광장부근)
● 법당 : 4층 건물 중 4층(70평)
● 시설 : 석가모니불, 호신불 120불
● 가액 및 시설비는 현장 방문 후 별도조정 가능
018)535-7001

스 님
신용카드가 필요하십니까?
부다피아하나카드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대상 스님, 종무원
● 문의전화 : 02)6678-1115~6
현대불교 부다피아 카드 사업단

사찰 안내
● 경남 거제도 시내에서 3분 이내 거리
● 주위경관 수려하고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바다가 보임
● 요사 방4개 주방1개 창고1개 등
● 전세금 약간
011)865-3589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푼질방(방비석) 40평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4~5년)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현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 도로 접은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매
미 륵 사
053)793-5808/794-5809

조용한시골집건물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 건평 : 15평, 대지 : 60평
● 황토집 집앞 농로 있음
● 가액 : 900만원 절충가능 (가옥만 가능)
018)330-0242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 7동 → 삼각로타리
● 3층 건물 중 3층(85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삼존 부처님, 법당 시설 완비 (시설비 1000만원) 가액 조정 가능
● 포교당, 불화, 탱화, 화방(불교) 전통찻집 운영하실분도 환영
011)507-7712

사찰 안내
● 김천시내에서 10분거리
● 국도인접 산새수려
● 자활영농 가능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지 거처
● 별도건물 합해서 약 2천평
● 사정상 주인 직접
● 2억 2천만원(협의가능)
017)513-4898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함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10폭 남개병풍
* 폭 10자 * 높이 5자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김천 ● 위치 : 경기 ● 위치 : 부산 ● 요사 : 75평
● 법당 : 18평 ● 법당 : 12평 ● 법당 : 30평(기와,단허필)
● 요사 : 45평 ● 요사 : 25평 석불, 석탑 ● 부지 : 548평 ● 가액 : 8억 5천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경내 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 임
● 부지 : 40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1억9천 ● 가액 : 1억2천5백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자동차 판매
● 기아자동차(주) ● 현대자동차(주)
스님과 불자님의 모든자동차를 믿고 맡겨 주시면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전화 : 053)521-1100
휴대폰 : 011)509-9456
원응 곽영순 합장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사찰 터 안내
경남 산청에 임야 4만평안에 축사 600평 주택 22평 명당터에 주위경관 너무 좋음. 사찰로서 최적지 주인직접 가격 절충
055)972-0045
011)835-5622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오천평, 삼천평등
● 용도 : 사찰, 납골당,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근교(장기면)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자리 봉황과 맹호 출립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용도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
● 가액 : 평당 5만~10만 (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수액시트의 배독요법
병을 고치려면 먼저 독을 빼라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만한 효과!

무슨통, 어깨통, 요통, 류마티스, 작종 관절염, 통풍, 간염, 신장병, 위염, 천식, 갈기, 불면, 만성피로, 심한거리운증, 비만, 고혈압 노망해, 치통, 임의 후유증, 냉증 등 80이 정병
● 실제 배출되는 노폐물은 확인 된다
● 병원의사도 인정하는 배독요법
● 발바닥과 환부에 붙인다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강제은 저
10,000을 보내면 작사 체험시트 3장분 보냄
한빛은행 114-07-124799
한국목탄연구소 021925-03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부지 : 108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2천(산 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남원시내 광화루 1000m 지점
● 부지 : 대지 161평 건물 25평
● 현시세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불사 할 수있는 도량
063)634-1592
011)9646-1592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명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016)635-4569



버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버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엿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취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쾌차 매매 사고에 방.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글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 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만택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법당 : 40평 ● 요사 방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대로변 위치 포교 최적지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법당 : 50평 ● 요사 방 4개
● 보증금 6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대로변 위치 포교 최적지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포교당 안내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지하철) 5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43평
● 건물 : 일본식 2층, 벽이 흙벽집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집기일체 완비
011)514-0108

사찰 안내(급)
● 위치 : 경기도 합천군 쌍책면
● 대지 : 78평
● 건물 : 법당, 요사채(35평)
● 뒤산은 울창한 대나무 숲
● 가액 : 2500만원
011)513-2745

사찰 터 안내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산 9 (절터, 암자 적합)
※ 차량진입가능, 저수지, 계곡을 끼고 있음
● 2,700평(평당 2만원)
011)603-4855
061)382-4077

전화요금 해방
시외전화 55%할인!
시외전화 87원 → 39원(55%)으로 할인
휴대폰에 걸때19원 → 14원(26%)으로 할인
캐나다 1488원 → 97원(94%)으로 할인
할인되는 전화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MTT월드폰 通信 02)424-94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위치 : 부산 영도 ● 위치 : 경북 철곡
● 부지 : 470평 ● 부지 : 126평(시유지) ● 대지 : 1,400평
● 법당 12평 요사2동 40평 목조 신축사찰 임 ● 법당 산신각 18평 ● 묵조법당 30평 요사2동 60평 용황당 14평 산신각 4평
● 양도가 : 2억 2천 ● 양도가 : 1억 3천 ● 양도가 4억 8천 절대운 절, 신축 사찰임
● 시내에서 5분, 신도관리 용이 ● 영험도량
영남지방 전문 사찰컨설팅 (사찰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시내소재)
● 건물 3층 법당 (46평)
● 기존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 문수원불 52불 관세음보살원불 30불, 대형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주방포함)
● 가액 : 보증금 1천오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가액조정)
016)875-0934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백두대간 산간오지(700고지) 양지전망 좋은
● 상태 : 전기 전화 없음 사륜 구동차 진입 가능 집지을 통나무 많이 있음
● 평수 : 밭 2630평 ● 대지 : 104평
● 가액 : 3300만원
054)637-8354/011)9542-2537

〔급〕 사찰안내

사문 노승은 25년 전에 비구승의 단신 몸으로써 오직 남북평화통일 기도와 서부전선 여러 부대 법당를 설립하고 군포교활동과 파주경찰서 조립식사무실을 설립하여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임진각 광장에서 10년간 법화경 일인 일자씩 사경기도와 분골쇄신 할 정도로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진 부대 여러 사단장님, 참모님, 역대서장님등 여러 불자들이 서부전선에 호국승장이라 하였습니다. (신도는 500명 정도이고 축원카드를 보유 중) 병든 몸으로 밤낮으로 25년간 기도와 포교활동에 지쳐서 몸에 합병증이 생겨 현재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있으니 꼼짝 못할 몸으로써 노령의 몸이 되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요하게 되어 살고 있는 사찰을 인연있는 승려가 있으면 급히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사찰은 15년 전에 지역사령관인 사단장께 대지 3천평을 사용승락서(사용땅은 1천평)를 받아서 해인사 용탑선원에 모셔진 대석불 좌상 삼존불을 윤 고암 큰스님의 뜻으로써 통일을 위하여 이 곳으로 모시고 대가람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좌석불은 석굴암 부처님 못지 않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35평의 큰방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벽돌을 다 쌓아 놓고 있는 중인데 창건주 노승이 큰 병마가 생겨서 큰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니 돈이 없고 25년전에 소승의 조상 봉제사돈 5억을 가지고 와서, 서부전선 포교활동과 절 건립등 돈을 다 써버리고 현재 돈이 없어 입원도 못해 급한 사정에 놓이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스님이 계시면 1억5천만 주시면 병원비와 방 한칸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겠으니, 급한 안내 드립니다.(모든 의논이 가능합니다.) 임진각 부근 철마는 달리고 산은 아담하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찾아 주시던지, 연락 바랍니다. (방광하신 좌석불의 가치가 대단함)

◆ 전화 : 031)952-7031 ◆ 휴대폰 011)9941-5818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 1리 117번지(임진강부근)

평화통일사 창건주 사문 윤 동암 합장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 : 대웅보전 35평, 산신각 7평, 대중방 10평 요사채 9평, 화장실, 수세식 2칸, 재래식 2칸(건립 중인 큰방 20평, 부엌 7평, 지대방 3평 규모있게 건립 중 임)

사찰 안내
● 위치 : 삼천포 와룡산
● 부지 : 470평
● 법당 12평 요사2동 40평 목조 신축사찰 임
● 양도가 : 2억 2천
● 시내에서 5분, 신도관리 용이
● 위치 : 부산 영도
● 부지 : 126평(시유지)
● 법당 산신각 18평
● 양도가 : 1억 3천
● 영험도량
● 위치 : 경북 철곡
● 대지 : 1,400평
● 묵조법당 30평 요사2동 60평 용황당 14평 산신각 4평
● 양도가 4억 8천 절대운 절, 신축 사찰임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로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54)637-8354
011)9542-2537

원룸 안내
● 영도 신선동 총 13실
● 7실 현재 임대수입 발생 중 (월 수 2백만원)
● 실인수 1억 1천
● 6실 (현 신축 중 - 예상임대 수익 월 170만원)
● 실인수 7천
018)280-8766/018)520-8818
(주) 한마음 건설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덕촌 전철역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건물 : 60평(3층)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님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 산신탱화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삼광진 역에서 3분거리 김해에서 33분거리, 부산에서 49분거리
● 평수 : 총 13,000평(대지+농림 합쳐)
· 사찰의 명당자리 · 명지관이 인정한 터
· 자연공원 소나무 경관 수려
· 포장도로 접함 현재 별장식 과수원
· 잔디 600평 · 정원수 다량 함유
· 실버타운 및 수련원 기도원 가능
※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055)346-3565/011)870-5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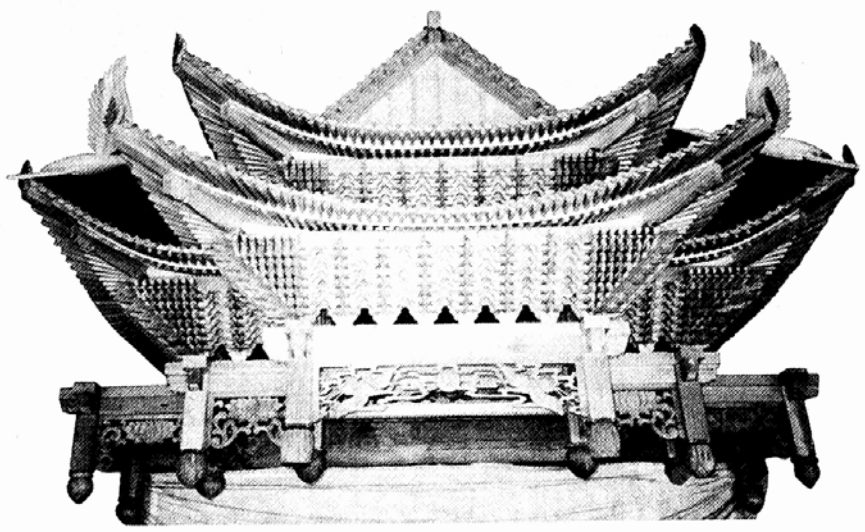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맘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포교원 안내(급)
● 위치 : 김해 동상동
● 법당 : 삼존불,지장,산신,용왕,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3개,주방,사워실,주차장완비)
● 전세 : 3,000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7)550-6581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사찰 안내
●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렷하며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법당, 방 8칸, 주방 되어 있고 천탑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자금관계로 매도
● 대불사 이루실 분 환영
018)223-2101

누 리 공 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 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수련과정

本 性 3박4일	참마음
一 性 1박2일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分別智
無碍法界 2박3일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업장소멸, 조상천도(薦度), 마음의휴식
無上覺 2박3일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義的삶 꾸미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삶의 유희(遊戲)
安 息 2박3일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禪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자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참마음수련 心田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제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빛이 윌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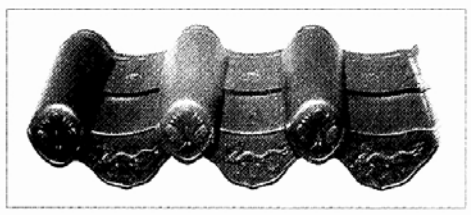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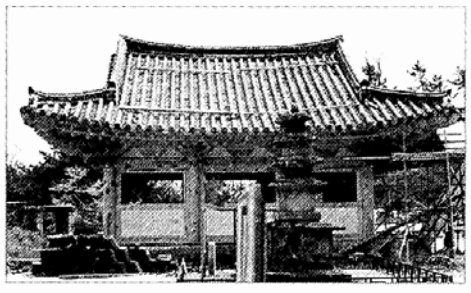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기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부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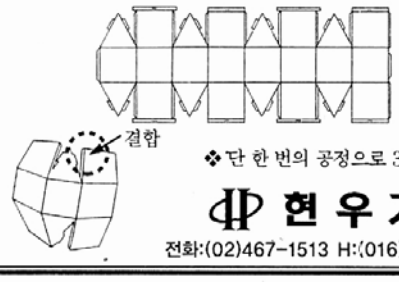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KNS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야생보호식물
입니다.

불교 이래서 좋다

박지영 한양대 경제학과 1년

"구속과 강요가 없는 종교"



불교는 걸림없는 종교라는 생각이 든다. 믿음을 강요하거나 절에 안간다고 해서 눈총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유가 존재하고 구속이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음악을 하는 나는 어느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절에 나가 기도하고 활동하는 불교의 신행생활은 더욱 내마음을 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나는 무슨일을 하든지 내 맘에 내키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질 않는다. 사찰에 나가는 것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자라면서 불교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나의 성격에 딱 맞아 누가 가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절에 다녔다.

물론 이런 자율적인 측면이 포교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이런 자율성 때문에 불교를 좋아하고 절에 나가는 신세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완전한 신세대는 아니지만 요즘 대부분 신세대들은 나처럼 구속받길 싫어한다. 그래서 가끔씩 절에 나와 친구들과 놀고 신행활동하는 이들이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는 친구들보다 의외로 많다.

나도 사찰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포교활동을 하기전까지 그런 불자들중의 하나였다. 안산 '천수사'에서 만든 록그룹 '지장보살'의 리코더 주자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꾸준히 절에 나가게 됐다. 음악을 통해 내또래 친구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금은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 활동을 쉬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자율을 존중해 주는 사찰 덕분에 나는 떠나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언제든지 가도 따뜻이 반겨줄 사찰이 있기에…

담배를 끊읍시다

병영에도 '금연펀드'

병영(兵營)에도 '금연펀드'가 만들어졌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56통신지원대대는 지난 1월 '금연펀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대장 손영학 중령의 제안으로 만든 이 펀드에는 장교와 부사관이 5만원, 병사는 3박4일의 휴가를 걸고 가입하고 있다.

6개월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안피는 금연에 성공하면 이 펀드에 가입한 장교와 부사관은 '5만원+이익배당금+2박3일의 특박'을 받아갈 수 있다.

만일 실패하면 5만원을 날리게 된다. 또 병사들이 성공할 경우 '3박4일 휴가+3박4일 특박'을 가게 되고 실패하면 걸었던 휴가를 금연 성공자에게 내줘야 한다.

특박은 대대장이 '성과급'으로 내놓은 것이다.

처음 이 펀드를 만들때는 28명이 가입했으나, 금연 성공률이 높아지자 모두 36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금연에 실패한 사람은 단2명뿐이다.

손중령은 "여러 차례 금연운동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금연펀드를 만들었더니 금연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금연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펀드에 가입하려는 장병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제공)

성과급 장교 5만원 · 사병 3박4일 휴가

성년 맞은 대불어 부산지구

기념법회 등 각종행사 '풍성'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부산지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인 '전래놀이 한마당'. 어린이들이 '굴렁쇠 굴리기'를 하며 전래놀이를 배우고 있다.

발자취 모은 '현대어린이포교사' 봉정식

사물놀이 · 찬불가 공연, 지도자 표창도

1982년 3월 27일 부산의 어린이 포교에 봄바람이 불었다. 소림사, 법륜사, 미륭사, 옥련선원 등 12개 사찰의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부산불교어린이교사회가 창립되면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싹텄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불교어린이교사회는 현재 어린이 포교 활성화의 중심 축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모태가 되었고, 부산지역의 새싹 포교를 선도하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 이하 부불어로 자체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3월 27일은 부불어가 창립된 지 정확하게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부불어는 이날 양정청소년회관에서 20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자축의 자리를 마련하고, 성년을 맞은 부불어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부불어는 어린이 포교 20년사를 모아 정리한 책자 〈현대불교어린이포교사〉 봉정식과 함께 꾸준히 활동해온 지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회원들을 격려한다. 특히 통도사부산포교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공연, '소리공양'의 찬불가 공연, 현역 지도교사들의 찬불가와 율동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어린이 포교분야의 개척자요 선구자였던 부불어가 20년 동안 펼쳐온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포교사업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대별된다. 부불어에 의해 시도됐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전국의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부불어 탄생이 어린이 포교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 법회 통일교재인 '연꽃'지나 전국의 지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등은 모두 부불어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다. 특히 지도교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어린이 포교의 산실이 되고 있는 대한불교교사대학도 1985년 열렸던 어린이교사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부불어가 새싹 불자들을 위해 펼쳐온 연꽃 문화제와 전래놀이 한마당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업들로 새싹불자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연꽃 백일장과 사생 대회, 그 우수작품을 모아 펴내는 작품집 〈연꽃 마을〉은 어린 불자들의 맑고 고운 눈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성년을 맞은 부불어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정보교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찰별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법회를 지원하면서 현재 40개인 지회 수를 늘리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모임도 조직할 방침이다.

최미선 부불어 사무부국장은 "전국에서 지회별 연계가 가장 잘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구별 합동법회,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 등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성숙된 포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세이클럽 카페 '청년불교 우리사랑'

불교 · 삶의 의문 속시원히 … 매달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

"청년불교란 '생동하는 불교'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법회를 봉행하는 생활인의 불교를 닦아나가고자 합니다."

세이클럽 불교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대표시삽 이성학, http://club.sayclub.com/@lotus)에 접속하면 삶과 불교에 대한 의문이 속 시원히 풀린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별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000년 1월 7일 개설된 이래 꾸준히 회원이 늘어 지금은 회원수만 3312명. 세이클럽 인증동호회 및 인기 동호회로도 선정된 관록의 동호회다.

전반적인 운영은 대표시삽 이성학 씨가 맡고 있지만 세부 운영은 7명의 부시삽이 서울, 경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눠 지역관리, 동호회 기술 운영지원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메인화면.

청년불교 우리사랑은 큰스님들의 법문을 담은 금주의 법문, 성철스님 시봉일기나 100문 100답 등의 교리문답장인 기획연재물이 있고, 봉사활동 장소를 소개하는 자비와 봉사, 초심자 코너, 회원들의 세상 보는 관점을 알 수 있는 바른 세상 만들기, 젊은 날 인생상담 등의 코너가 있다. 자료실에는 수지독송자료실, 교리기타자료실, 도량불교사이트등 다양한 불교자료를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년불교 우리사랑은 한달에 한번씩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단순히 만남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찰을 정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다지는 정진 모임이다. 또한 사찰 주변의 유물 유적답사도 함께 한다. 모임 후에는 게시판에 그날의 법문을 정리해 올려 법회에 참석치 못한 회원들에게도 법향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삶에 대한 희망도 짧은 날의 고뇌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은 곳, 청년불교 우리사랑에 가면 기쁨이 있다.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청담정보高 특성화校 지정

평택 청담정보통신고가 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고교로 지정됐다. 이에 청담정보통신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등록금도 특성화고는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일임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학생 선발도 경기도에서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교장은 "일반 기업체들과 연계해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지장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종교활동의 영역도 넓혀 학생들에게 불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개최

목동청소년회관은 31일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개 팀에서 50여명의 중고생들이 참가한다. 1부는 댄스경연대회, 2부는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열린다. 또 경연대회 중간에 관람객들을 위한 '풍선아트', '댄스춤 시연' 등이 진행된다.

목적사업팀 이상현씨는 "3년전부터 시작한 목동청소년회관 댄스동아리 열기가 높아져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02)2646-6815

불교레크리에이션協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11일부터 6월2일까지 매주 월 · 금요일 저녁 7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제17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내용은 이론을 비롯해 교리, 댄스, 음악, 생활, 게임, 야외활동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2급 지도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02)738-786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예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혹,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전화오거나 찾아오거나 가서 만났을때 그 시간만 보아 상대방의 비밀한 정황들을 미리 알게 되고 그것을 즉시 먼저 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육임비서(秘書)!
「이 책 한장(만 꺼내 갖고 다니면) 이면 내 활인천역(活人天役 .. 스님 오행가 · 신명제자)은 이제부터 걱정이 없다」

· 좌정용 130만원 · 휴대용 150만원 · 증보판 35만원

전화 02)993-8680 · 996-3335 051)851-2349
입금처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육임통신강의 접수중
■ 매월별 전 12권 바인더 제본
■ 입금(카드 구입 가능) 즉시배달함
휴대용한정본 발매중
도서출판 卜問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에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 (전문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46-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직지사앞 대규모 문화공원

내년 2월 완공 "사찰환경보존 새 모델 될것"



◇직지사 문화공원 조감도.

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김천 직지사(주지 법성) 산문 앞에 2만1천여 평 규모의 대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지난해 말부터 100억원을 들여 직지사 입구의 7만9천여㎡에 조성되고 있는 직지사 문화공원에는 인공폭포와 분수대, 목교, 산책로, 조경, 정자 등이 들어서며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직지사 앞에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개발에 따른 훼손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전통사찰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직지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사찰환경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민이 즐겨 찾고 함께 가꾸는 사찰환경 보존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드문 경우지만 지역사회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민은 물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지사는 2000년 2월 건축물 설립 규제완화조치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 이후 토지 소유자들의 무차별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사찰환경수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2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법상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포교활동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법륜스님, 법상종 총무원장 취임

대한불교법상종 제 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된 법륜(법륜사 주지) 스님의 취임법회가 22일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에서 봉행됐다.

법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리 종단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대외적인 종단 홍보와 포교에 더욱 힘쓰겠다"며 "특히 종단 승가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포교 전법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총무원장으로 추대된 법륜 스님은 1970년 불암사에서 출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87년 법상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고, 93년부터 1월까지 법상종 9·10대 총무원장을 수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상종 종정 화암 스님과 쌍미륵사 주지 혜원 스님, 안성 사암련 회장 도광(칠장사 주지) 스님, 이동희 안성시장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여수령 기자

태고종 법천 전남종무원장 취임식



태고종 제12대 광주·전남 종무원장 법천스님 취임법회가 19일 종무원사가 있는 광주 운천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 스님들과 광주·전남 종무원 산하 각사암 주지 및,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월정사서울포교원 법종사 4월9일 개원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주지 무주) 개원법회가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쌍문1동 도량에서 거행된다. 주지 무주스님은 "월정사와 한암문도회는 재단법인 조계종성찬회를 설립, 근본도량으로 월정사 서울포교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종사 전경. (02)905-6666

티베트승 초청 만다라제작시연



인천 보각사(주지 지철)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월드컵 성공기원 티베트 라마승 초청 깔라챠크라 만다라 제작 시연 및 밀교의식 특별 천도재를 봉행했다. 티베트 밀교의식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서 왕다(Wangdan) 스님 등 4명의 티베트 스님들은 각양각색의 모래로 만다라를 직접 제작했다.

한나래, 외국인과 경주남산 순례



통도사 부산포교원 산하 (사)한나래 문화재단 국제부(회장 김건웅)는 17일 제 54차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열고 경주남산을 순례했다. 외국인 26명을 비롯한 50여명은 삼릉, 냉골 석조여래좌상 마애관음입상, 선각 육존불, 상사바위를 거쳐 금오산 정상에 오르며 한국불교문화를 만끽했다.

종단소식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스님 선출



대한불교보문종 11대 총무원장에 법종 스님이 선출됐다. 보문종 중앙종회(의장 지환)는 18일 임시종회를 열고 법종 스님(사진)을 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했다.

법종 스님은 1938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60년 보문사에서 은영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90년부터 7년간 보문종 총무원 부원장 소임을 맡았으며 98년 호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종단 유지법인인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 이사와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태고종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태고종 묵담대종사 제주문도회(회장 수열스님)는 31일 오전 10시 제주시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해동율맥 전승기념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법회는 해동율맥 9대 율사이며 태고종 5, 6, 7, 10, 11대 종정을 역임한 묵담대종사에서 원효종 종정 법홍스님으로 이어진 해동율맥을 묵담대종사 손상좌인 수진스님(용화사 주지)으로 이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봉행되는 불사다. (064)752-0810

원효종

43회 임시중앙종회 개최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19일 서울 종로 공평동 종단 회의실에서 제43차 임시 중앙종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종회에서는 종단 분규 종식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종정 법홍 스님의 재추대 안건을 비롯해, 5월 11일 열리는 '원효성사 열반 추모대재' 등을 논의했다.

본원종

제25회 정기종회 열어

대한불교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9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제25회 정기종회를 개최했다. 본원종 교육원장 동광, 포교원장 대봉, 종회의장 대운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대화스님은 "종단 법회와 신도교육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전법도생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불교회관 기공

10월 완공, 신행단체사무실 등 활용

광주불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천운스님, 이하 건립추진위)는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회관 부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 호남불교 부흥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총 20여억원의 불사금을 투입하는 건립추진위는 송광사 광주포교당 무각사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추진되며,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여평의 대지에 총면적 600평 3층 규모다. 예산은 광주시로부터 8억원을 지원받으며 12억여원은 불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건립추진위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 사무실, 불교 유치원, 시민선방, 도서관 및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불교회관이 개관할 경우 호남불교계를 주도하는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후원계좌 556-01-0517-849(예금주 무각사)

주용직 광주지사장

게시판

▲수화자원봉사자 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자원봉사자 교육을 한다. 4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11시. (02)732-5101

▲독서요법 프로그램=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치매예방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소집단전문 프로그램 독서요법을 4월 11일에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실시. (02)385-1351

▲상락원 원장 초빙=승가원은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의 원장을 초빙한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조계종 스님으로 마감은 31일까지. (02)928-0750

▲토요일 전일제 특활반=부산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전일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6일부터 4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9~12시에 실시. (051)868-0750

▲아버지 법회 안내=광림사 연화복지원은 매월 2번째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광림사 법당에서 아버지 법회를 연다. (02)2202-5831

▲리본아트 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리본을 이용한 실용소품·헤어악세사리 및 선물포장 등을 만드는 취미강좌를 연다. 개강은 27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02)228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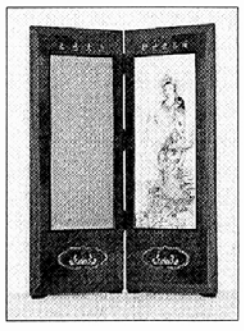
▲종단사 간행 집필자 초빙=태고종사 간행위원회는 종단사 간행을 위한 집필진을 초빙한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 분야는 한국불교 고대사, 근현대사, 분규사. 제출기간은 4월 15일까지. (02)745-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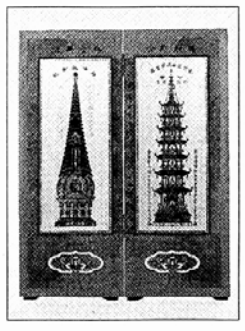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북한산도로' 저지활동 본격화

공대위, 환경장관 면담 건설중단 요청
본사주지·종회의원 송추현장 찾아 격려
비구니회, LG그룹 사과·피해보상 요구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송추건설현장 나무심기 등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불교 공동대책위와 종단,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는 8, 13일 국무총리, 건교부 차관과 면담한 데 이어 18일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만나 불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대위 대표로 김 장관을 만난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통도로 건설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불교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통령 면담과 국회 상임위 면담도 추진, 건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스님 40여명은 18일 오후 의정부 송추 농성장을 방문해, 정진중인 회룡사 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공사현장을 둘러본 종회의장 지하스님은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종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15일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등 5개 건설 사업의 취소·재검토·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요청서를 청와대, 건교부, 문광부와 각 당 정책위 등에 전달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도 19일 고창 선운사에서 13명 본사주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월9일 북한산 환경파괴현장을 직접 방문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21일 비구니 스님 폭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중지와 LG그룹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 전국비구니회는 LG제품 불매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도 추진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19일 대전 지질자원연구소에 북한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를 의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부실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식목일에 맞춰 의정부 송추 건설현장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환경부는 천성산 보전대책 수립하라" 양산 천성산 내원사 지율스님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노선변경을 촉구하며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스님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환경부와 건교부 앞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사진=박봉영 기자

조계사 인근 주상복합건물 건립 반대

삼양식품 구사옥 천막농성

조계사가 인근 24층(높이 97m) 주상복합건물 착공을 저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신축예정지인 삼양식품 구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9일 오후 시공주인 넥스트이미지가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벌이자 이를 저지했던 조계사는 시공주가 계속해 철거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 천막농성으로 공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천막농성장에서는 일정 인원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한편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이날 조계사를 방문한 넥스트이미지 김정한 사장에게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거작업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빌딩 건축과 관련해 조계사는 50m 이상의 규모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축주인 삼양식품은 20m 이상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미신고 복지시설 전국 637곳

한국보건사회연 발표, 불교 24곳 3.9%

전국적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637곳이며, 이 가운데 불교시설은 24곳(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342곳(5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91곳(31.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설장이 개신교인 시설은 377곳(60.7%), 천주교는 210곳(33.8%)으로 전체 94.5%를 차지하는 반면, 불교는 24곳(3.9%)에 불과했다.

이는 불교계 미신고 시설과 시설장이 불교신자인 곳이 적은데다,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우 기자

사이버포교 본격화

포교사단 인터넷교실개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지난 12~26일 서울 및 경기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정보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포교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정보, 동영상, 포교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네티즌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법당난입 재발방지 약속 정대스님

경찰 문책인사, 종로경찰서장 108배 '참회'

재가연대 '999인 선언' 추진 진상규명 재촉구

지난 10일 발전노조원 강제연행시 조계사 대웅전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에 대해 21일 정대총무원장 스님이 교계 신행단체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합으로써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김진관 서울광역신도회장, 김대중 포교사단장,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이하 대불청), 박문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하 대불련) 등 6개 신행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대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안정과 조계사, 총무원이 분규현장으로 비춰지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두었었다"며 "경찰이 요청 의도와는 달리 과잉진압해 유감스러우나 서울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사과방문했기에 이를 수용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불교 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대불련, 진각종 청년회 등과 21일 모임을 갖고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교계 청년·학생·신행단체 회원들의 뜻을 모아 333인이 참여하는 1차 선언을 발표해, 총무원 측의 진상규명을 재 촉구키로 결의했다. 또한 재가연대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은 999인 선언과 지식인 선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권력난입규탄 범종교청년학생결의대회'에서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참회의 뜻을 밝히고 108배 참회정진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대길 서울경찰청장도 종로서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을 전보 조치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주일·강유신 기자

울산시립노인요양원 개원

29일, 100명 수용 최적시설 갖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전경.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상임이사 현문스님)이 수탁 받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29일 개원한다.

지난 1월 24일 위탁받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대지 536평, 건평 61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노인 1백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 명관스님은 "통도사자비원, 울산시립노인요양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로 노인분야의 전문 복지 서비스의 산실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울산=천미희 기자

종교관련 가계지출 연간 4조3692억원

강인철교수 발표

종교관련 가계대출이 연 4조3천692억원에 달하며, 이는 월평균 가계지출의 1.5%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신대 강인철 교수(종교문화학)는 최근 발간된 계간학술지 '비평' 봄호에 실은 '종교와 자본주의' 논문을 통해 "자본주의 하에서 종교와 경제가 분리된 것 같지만 이는 관계방식의 변화"라며 "종교의 상품화와 산업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종교를 '영혼주식회사'에 비유하며 △종교산업의 높은 수익성 △재정 사유화 경향 △재정 불투명성 △성직자의 'CEO화' 등을 폐해로 꼬집었다. 강 교수는 "최근 일어나는 종교내부의 개혁운동은 종교의 비영리성, 공익성, 청빈성이 붕괴되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병의 치유와 건강, 취업과 승진, 진학과 사업의 번창 등 종교적 구원재가 다른 상품처럼 돈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평양 방문해 달라"

조불련, 방북 초청장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4월 2일부터 9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방북초청장을 보냈다.

이 초청장에서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은 "종단협과의 유대가 강화되길 희망하며, 태고종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종 통리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천태종 사회부장, 진각종 총무부장님의 평양방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음력 2월 8일(21일)과 15일,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21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절 108 참회발원 정진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정진주간 입재식은 포교원장 도영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대중 포교사단장과 각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한 열렸으며 도영스님의 법어와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의 선언문, 이영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개별 사찰들도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마련했다. 조계사는 21~28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1일 출가' 참선 프로그램을 마련, 재가자들은 발우공양, 독경, 108배 정진 등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서울 구룡사는 10년째 금강경 사경을 했으며, 법장사는 21일 출가절 당일 동해 삼화사와 강릉 낙화사로 사찰순례를 떠났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도정진을 갖는다. 대구 관음사는 주지 우학 스님으로부터 '바른 불자로 수행하고 봉사한다'는 주제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매일 1천배 정진과 금강경 독경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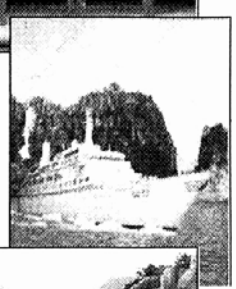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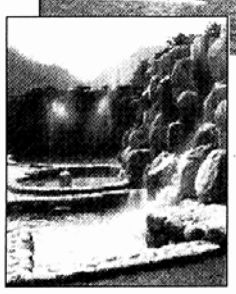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부처님 출가·열반일 행사풍성

일일출가·참선·금강경사경 등

2002 민족화합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성지 순례단 모집

— 부처님오신날 봉축 통일염원 금강산 신계사 연등법회 봉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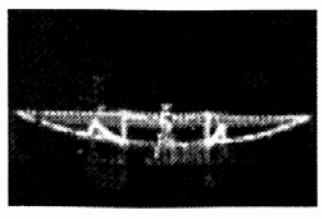




■ 순례기간 : 불기 2546(2002)년 5월 4일(토) ~ 5월 6일(월) [2박3일]
■ 신청마감 : 4월 20일까지 (객실 예약관계로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동 참 금

행사 동참금	비 고
48 만원 (1인)	※ 성수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지원
※공통사항 : 호텔 해금강 일반실(2인1실) 기준 서울↔속초간 버스요금(2만원) 별도	※ 일반 금강산관광 코스와 동일하며 불교행사가 추가됩니다



■ 관광코스
• 기본코스 (삼일포/해금강) : 고성항 — 온정리 — 삼일포 — 단풍관 — 장군대 — 해금강
• 선택코스 (택1)
1. 구룡연코스 : 고성항 — 온정리 — 신계사터 — 목란관 — 양지대 — 삼록수 — 금강문 — 옥류동 — 연주담 — 비봉폭포 — 상팔담 — 구룡폭포
2. 만물상코스 : 고성항 — 온정리 — 관음폭포 — 육화암 — 만상정 — 삼선암 — 귀면암 — 절부암 — 안심대 — 천선대 — 망양대

■ 프로그램
• 2002 부처님오신날 봉축 통일염원 금강산 연등법회 (큰스님 법문)
• 참가자 전체 신계사 연등법회 등표달기 (연등과 등표는 현장에서 지급)

■ 제출서류 : 관광신청서(접수처 문의),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1부
■ 접 수 처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3층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02) 720-0531 Fax 02) 720-0532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053-01-243500,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금강산 신계사 연등모연>

민족의 영산 금강산 신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등불을 밝힐 연등 모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등 모연에 참여하실 사찰과 개인 불자님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후 원 : 문화관광부, 현대아산(주),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btn, BBS ■협 찬 : 우림산업전기

방대한 농경지로 변해버린 사굴산파 本刹

우리나라의 폐사지는 모두 3천2백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세상에 알려져 세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1백여 곳.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도 역사의 뒤뜰에 방기된 채 무심한 풀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었거나 세월의 그루터기가 되어 삭아가고 있다.

얼마전 강원도 양구군 동면 군부대 작전지역 안에 있는 심곡사 터가 국가소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심곡사 폐사가 6.25 전화(戰火)로 인한 소실이라면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은 실종된 채, 아예 그 터전마저 국가 소유라는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억지라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헌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마왕 파순(波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천년을 대 물려오던 당대의 유산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폐사지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러나 노선이 분명한 길은 행선지가 멀어도 가야 하고 역사의 행렬은 동행자가 없어도 뒤따르는 이들을 위해 가는 것이기에 다시 또 부지런히 거친 산하를 향해 길을 떠난다.



◇방대한 농경지와 마을이 들어선 명주 학산리 굴산사터. 전성기에는 사찰 당우의 반경이 300m에 이르고 스님들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제시카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명주 학산리 굴산사터



영동지방의 마지막 폐사지 탐험으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굴산사(崛山寺) 터를 찾아간다.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학산 마을에 소재한 굴산사 터는 강릉이 왜 독자적인 '지방문화의 상징적 도시'로 꼽히는 가를 보여주는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불교유적이다.

이혼아홉칸 짜리 선교장이나, 오죽헌, 어설픈 낭만으로 경포호반의 정취에 취했다고 해서 강릉의 문화를 접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실수다. 해안선에 바짝 붙은 한폭의 '세한도'인 한송사터나 내곡동 야산의 '가르빙가 풍지' 같은 신복사터가 아니더라도 굴산사터를 순례해야만 강릉문화의 진수를 접한 포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산과 강은 영토의 경계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긋는다. 백두대간의 주릉에 걸터앉은 대관령이 있기에 영동과 영서가 갈라질 수 밖에 없었으며, 강릉과 명주는 대관령을 든든한 '지킴이'로 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화를 피해 강릉문화를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대관령에서 학의 날개인양 웅장한 산세가 동해를 향해 펼쳐져 있는데, 이 산이 바로 96년 '강릉 북한잠수정 침투 사건' 당시 북한 공작원들이 북으로 도주하면 길목인 매봉산이다. 학산리는 바로 대관령 자락인 이 매봉산 아래 고즈넉히 자리잡은 마을로, 대관령 동편에 이렇듯 큰 평야가 자리잡고 있음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옛부터 '놀기 좋은 곳은 성산이요, 살기 좋은 곳은 학산'이라 불릴만치 풍요가 넘치던 학산 마을. 이 마을 전체가 굴산사터다. 가히 통일신라의 5교9산 중 일문을 이루었던 사굴산파의 본산이 있었을 법한 명당중의 명당이다. 굴산사터의 볼교 유적은 전국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는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사방 4천~5천평의 대지에 흩어져 있다. 이 방대한 불사를 일으켰던 범일(梵日 810~889)국사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 대찰이 역사 속에 폐허로 남게된 사정은 또 무엇인가.

범일국사는 강릉단오제에서 '대관령국사서낭신'으로 추앙받는, 강릉일대에서는 신격화된 존재이다. 속명은 김품일(金品日), 시호는 통효대사(通曉大師), 탑호는 연휘(延徽)라 전한다. 범일국사의 탄생에 얽힌 설화는 매우 실증적이다. 학산리 마을로 진입하는 송림(松林)을 지나 삼거리에는 지금도 석천(石泉)이란 돌우물이 남아 있는데, 옛날 학산 마을 한 처녀가 이 우물에 물길러 왔다가 바가지로 물을 뜨니 물 속에 계속 해가 떠 있어 물을 버리고 다시 떴으나 여전히 해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처녀는 그 물을 마시고 곧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아비가 없는 자식이니 마을 뒷산 학바위 밑에 버렸다.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 처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튿날 그 곳에 다시 가보니 뜻밖에도 학과 짐승들이 모여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보살피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아이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데려다 키우니, '학이 키운 아이', 그가 곧 범일국사라는 것이다.



◇높이 5.4m의 당간지주(보물 86호).

범일국사는 15세에 출가하여 흥덕왕 6년(831) 대당 유학 길에 올라 중국 마조선사의 제자인 제안(齊安)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문성왕 6년(844) 계림으로 돌아온 범일은 851년까지 박달산에 머무르다가 문성왕 9년(847) 명주 땅에 들어 굴산사를 창건했다. 굴산사는 명주군왕 김주원 일파의 후원을 받아 크게 선풍을 떨쳤으며, 이후 그는 여기서 40여년 간을 주석하며 서라벌 왕들의 끈질긴 국사 요청에도 불응한 채 낭원(朗圓 835~930), 행적(832~916) 같은 후학의 지도에 힘쓰니 여기서 사굴산파의 일가가 크게 번성했던 것이다.

범일의 큰 뜻을 닮았음인가, 굴산사터 초입에는 보물제 86호인 높이 5.4m에 이르는 최고의 당간지주가 도도한 세월의 격랑을 거슬러 당당하게 서있다. 보통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 우람한 자태는 매봉산 산세를 제압하고도 남는다. 여기에 불사나 법회를 알리는 당간(幢竿)이 세워져 펄럭이고 있었다면 아마도 사방 10여리, 대관령 영마루에서도 그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대한 통돌을 일으켜 세운 범일국사의 통돌같은 진면목을 여기서 발견한다.

신라의 천년 사직을 이끌어 온 사상적 지주였던 불교는 통일 전에는 교종의 5교로, 통일 후에는 선종의 9산으로 전국 도처에 큰 숲을 이루었다. 5교는 경전을 중시했던 교종으로 계율종, 법상종, 열반종, 법성종, 화엄종의 다섯 종파요, 9산은 좌선과 수양을 중시하던 선종으로 가지산, 실상산, 사굴산, 동리산, 사자산, 성주산, 희양산, 봉림산, 수미산의 아홉 선문(禪門)인 것이다. 그 가운데 이 곳 관동에서만 제1문인 가지산파와 제3문인 사굴산파가 위풍당당한 선풍을 드날렸으니, 이 지역이야 말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고대했던 변혁의 발원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련된 조각의 부도에서 범일국사의 법향이…

그러나 변혁의 물길이 샘솟던 석천은 이제 물이 말랐다. 변혁의 물줄기가 범일국사의 상징이라면 국사의 잉태 설화를 간직한 석천 샘터는 단순한 우물이 아닌 사상의 새암인 것이다. 물길은 이미 말라 '해가 담긴 물바가지'는 커녕, 목조차 축일수가 없는데 샘터 머리맡에는 무두불(無頭佛)인 석조비로자나불상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덧없음에 더욱더 목이 탄다. 굴산사터에서는 모두 3기의 비로자나불상이 발견되었는데, 농토 한가운데 작은 솔숲에 간판을 건 지금의 굴산사 법당에 본존불과 협시불로 모셔져 있고, 그와 짝을 이룬 불상 하나가 지금 이 마른 샘터에서 다시 물길 돌리기를 갈망하고 있다. 마을 입구 보호각 안에도 투박한 모습의 비로자나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굴산사가 가지는 교리적 의미나, 범일국사의 원력이 바로 비로자나불이 꿈꾸는 만다라 세상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범일국사의 부도(보물 제85호)는 마을의 북쪽 뒷동산에서 마을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부도를 만들 당시부터 현재의 자리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굴산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던 가를 다시금 실감케 한다. 범일국사가 입적한 이후, 고려 조에 들어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도 자체의 구조와 조각수법이 빼어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부도 하대석의 구름 조각은 마치 피어오르는 듯 하며 중대석에 조각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과 공양상의 모습은 들어볼수록 아름답고 화려하다. 고승의 열반은 이렇듯 맑고 향기로운 것일까. 탑신을 에워싼 봄 향기가 고승의 법열을 느끼게 한다.

굴산사가 폐사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광종과 성종 시기에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에 의해 신복사와 함께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1936년 홍수로 6개의 주춧돌이 노출되었을 때 문굴산사(門堀山寺)라는 기왓장이 발견되어 굴산사라는 명칭과 함께 절의 면모를 짐작하게 되었을 뿐, 사찰 당우의 반경이 300m에 이르고 수도 승려가 200여명에 이르며 쌀씻은 물이 동해까지 흘렀다는 굴산사 터는 이제 방대한 농경지로 변해 있다. 옛날에는 범일국사의 우직한 법력이 뭇 중생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나, 지금은 그 터전 가득 농토가 되어 농부의 생계를 이어주며 영원 무량한 불문의 대자비를 베풀고 있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여주 고달사 터 편

통일신라때 범일국사 선풍 떨친 대찰
세월의 격랑 이겨낸 당간지주만 올연



◇범일국사 탄생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석천.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填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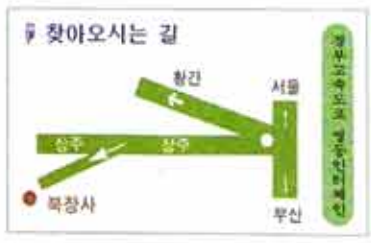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